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NOV 5 1981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0 1981년11월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November 3, 1981

# 해외교포 기술자 한국서 대거초청

##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전문직 종사자 단기방문 체류로 현장기술지도

한국정부는 현재 전문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교포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제1단계로 내년부터실시될 이 계획은 종전의 교육등 인문계와는 달리 『엔지니어』계통의 기술직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또 그 해당자들이 현재의 직장을 포기않고 휴가등을 이용한 단기간 한국체류로 기술지도를 말을 수 있게 문을 터 놓았다.

상공부가 마련한 이 교포기술자 초청대상은 우선 제1단계로●염색가공●열처리●도금●금형●계측기제조●주조등의 6개분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1단계에이어 앞으로 중소기업 전분야에 확대, 한국의 중소기업 진흥을 본국과 해외교포 합일체로 국제경쟁에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으로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서 특히북미지역 교포 전문가나 기술자들에게 정부는 크게기대하고 있다고 토론토총영사관 당국자는 전했다.

초청대상자는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기술자로서 다년간 현장근무경험이 있는사람(대학근무자제외)으로서 최소한 1개월이상 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포기술자들이 현재 지니고있는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휴가나 기타사정을 이용하여모국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있다.

정부는 교포기술자가 모국에서 지도계획에 참가할 경우 왕복항공료, 본국체재비 일체와 수당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교포기술자 초청의 잇점은 언어의 장벽이 없어 본국기술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지도받을수있다는 것이며 또한 교포기술자들의 성의있는 지도는 한국의 의식수준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도율을 높일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당국은 관심있는 교포들이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여 많은 신청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토론토 총영사관의 박종선담당영사는 2일 이 계획은 한국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주관으로 상공부가 지원하고 해외공관이 교포들의 상담을 받게된다고밝혔다.

박부영사는 캐나다에도 유능한 교포기술자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안다. 주위에서도 훌륭한 기술자들을 많이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 증설된 주차장에 모인 번영회 간부들. 좌로부터 장순채, 함병섭, 변의섭제씨 우측끝에 크리스티 지하철정류장이 보인다.

## 대졸취업증대

### 대회사 고용증대로

(서울30일=연합)한국의 5개 주요재벌그룹과 1천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30개회사는 금년 10개월동안 9,173명의 대학졸업자들을 신규채용했다.

이와같은 숫자는 작년도 같은기간의 4,522명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5개의 대재벌그룹은 6,590명을 신규채용 작년도보다 151%의 증가를 보였고, 30개 회사들은 2,583명 으로 36.5%가 증가했다.

##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 ④

# 항공표판매에 인종차별

**한국왕복 요금**

**캐네디안계는 최고**

**중국계여행사가 싸고**

**한국계는 중간**

지난 여름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려던 스카보로의 C씨는 한국계 여행사, 캐네디안 여행사, 중국계 여행사에 서울 왕복요금을 문의했다.

C씨는 같은 목적지인데도 어느 인종이 경영하는 여행사냐?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같은 거리의 여행이면 어느 여행사이건 항공요금이 같은 줄 알아온 때문이었다.

4월 현재 캐네디안 여행사의 성인요금은 1,460 달러, 어린이(12세 미만) 은 730달러였고, 한국계 여행사들은 일제히 성인 1,246 달러, 어린이 830달러((성인의 ⅔)여서 캐네디안계보다 성인 약 2백●달러가 더 쌌다. C 씨는 이를 고맙게 생각했으나 중국계 여행사요금(뉴욕경유 KAL)은 성인 1,146, 어린이 640달러여서 한국계보다 성인 1백, 어린이 190달러가 낮은 것을 발견,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E여행사에 계약금 2백달러를 내고 항공표를 예약했다(CP, KAL, JAL, 등은 6월1일부터 성인단체요금을 1,260달러에서 1,380달러로인상했다 . )

C씨부부와 아들 1명의 총요금은 2,932달러로 한국계여행사 가격보다 390달러가 쌌다.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5월5일 C씨는 E여행사로부터 느닷없이 "당신은 한국인이므로 표를 못주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여행사측의 이유는 KAL토론토지사로부터 야단을 맞았다는 것이다. "KAL은 중국여행사가 한국인에게 표를 파는 것은 한국인시장 침범이지만 표를 팔고 싶으면 한국계와 같은 요금을 받으라는 전화가 왔으니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이었다.

계약금까지 낸 C씨는 어안이벙벙, KAL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판매과장은 "한국인이면 한국계 여행사를 이용하셔야지, 한국계 여행사들도 먹고 살지요" 라고 답변하더라고 C씨는 말했다.

C씨는 "몇 교포여행사의 밥줄을 염려, 우리 교포들이 고국왕복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가격을 적용받는 것은 바로 법에도 금지된 인종차별이다" 라고 분개하고 있다.

좁은 한국인시장보다 숫적으로 방대한 중국인시장 진출을 노리는 KAL은 중국계 여행사에게 더 많은 판매코미션을 주어 그들이 한장이라도 더 KAL 표를 팔도록 했기 때문에 중국계 여행사는 한국인에게 10달러를 남고 팔아도 과외수입을 보는 것이므로 그들의 가격은 한국계 여행사와는 달리 「바게인」인 것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KAL은 여행사들이 KAL표를 사는 사람들의 풀네임을 제시하도록 규정, 중국계의 한국교포에게 대한 매표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았다.

CP항공 역시 이와같은 방침을 쓰고 있으나 그 들은 여행사의 이름을「이니셜」도 용납, 반드시「풀·네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계속」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 블루어에 새 주차장

## 번영회 추진, 회원 56개 업소

블루어 거리에 새로운주차장이 들어서게 됐다.

창설된지 1년3개월된 블루어 코리아타운 번영회는 그동안 블루어 한국인상가를 찾는 교민들이 주차장때문에 겪는 불편을 감안, 시당국에 수차례 주차장증설을 건의해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됐다.

새로이 주차지구로 지정, 한창 건설중인 곳은 블루어북쪽 뒷골목인 클링튼가로서 반도식품 뒷쪽에서고려식품에 이르기까지 약50대의 차를 주차할수 있는곳이다.

일부는 이미 개통, 20여대가 무료로 주차하고 있다.

이 사실은 블루어타운번영회(회장 함병섭)가 지난 30일 그동안 약 1년간의사업을 경과보고하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동번영회가 추진하는 사업중 블루어거리로 한인회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그동안 약 3,350달러 기금을 거두어 한인회관 이전의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한인회에서도 회관 이전문제를 회관 관리위원회로 넘겨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현재 번영회 회원은 지난 1년간 12개 업소가 추가로 참가, 56개업소에 이른다.

## 외국인 의료특혜 의료보험법 개정

(서울2일=연합)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30일 자료회의에서현행 의료보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데 뒤따른 것이다.

이번 혜택을받는 외국인들은 정부후원하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고 적어도 1년이상 한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한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개발원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사설기업체나 연구소에 고용된 외국인들은 소속단체로부터 여러가지 특혜를 받기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

## 현대, 미쓰비시 합작제휴

### 소형자동차 생산 수출

(서울31일=연합)한국현대자동차는 해외시장 개척을위해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와 기술자본제휴를 맺고 새로운 승용차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정세용 현대자동차 사장은 30일 년30만대를 생산할수 있는 새공장 설립을 위해 약6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이중 약 4억달러는 외자도입으로 충당한다.

새공장은 울산에있는 기존현대자동차공장 부지에 세워지며 내년에 공사착수, 85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정사장은 새로 생산되는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1,000cc~1500cc사이이며 가격, 질, 연료경제면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이번 미쓰비시와의 제휴로 향후7년간 미쓰비시에게 대당 42달러의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 ◁이번주 TV한국▷

— 채널 47

11월5일(목) 낮12시30분~1시
11월9일(월) 낮1시~1시30분
※11월6일(금). 이번주 방송 없음
한국소개 기록영화 〈한국〉 (영어해설)
패티킴쇼(마지막회)
17세기 전설의 고향 〈뜬구름〉

## 사우디, 석유감산발표 하루 8백50만배럴로

〈제네바-AP〉 세계최대의 석유생산국인 사우디는 원유생산을 일일8백50만배럴로 감산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야마니 석유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일생산 9백20만배럴에서 약70만배럴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社 告

###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 · 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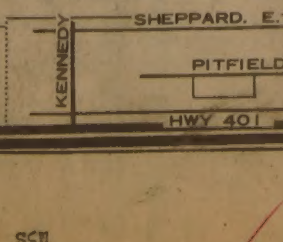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 | REG. | SPEC |
|---|---|---|
|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 2.69 | 2.20 |
|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 2.49 | 1.96 |
| ●갈 비 Lb.(BOX제한없음) | 1.69 | 1.29 |
| 냉동갈비 Lb. | 1.49 | 1.05 |
| ●소 꼬 리 Lb. | 1.35 | ..95 |
|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 10.90 | 9.50 |
| 〃 B품 | 10.50 | 7.40 |
| ●명 간 장 1gal. | | 6.90 |
| ●양 잠 피 1kg | 2.25 | 1.80 |
|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 | |
|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 24.00 | 19.00 |
|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 24.00 | 19.00 |
| ●오징어젖 Lb.(특별가격) | | .80 |
| ●김(새로입하) | 19.99 | 13.95 |

★햅쌀입하 ★햅쌀입하

| | REG. | SPEC. |
|---|---|---|
| ●멸 치 젖 Lb. | 2.99 | 1.99 |
| ●어리굴젖 Lb. | 4.90 | 2.90 |
| ●한국고추가루 Lb. | 3.95 | 2.90 |
|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 | |
| ●마늘 · 생강(특별가격) | | 1.45 |
| ●찹살고추장 | 2.50 | 1.99 |
| ●된 장 | 1.50 | .99 |
| ●달걀(1다즌, Large) | | 1.25 |
|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 | |
| ●물 미 역 | 1.39 | .99 |
|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젖($2.90) FREE | | |
|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 | |
|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 | |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 서울대, 대규모반정부시위

## 친정부교수를 각목으로 구타 15명 부상

(서울2일=연합) 수백명 학생들의 격렬한 반정부시위로 개교35주년기념 서울대학교 축제는 수라장이되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반정부시위는 축제가 시작되기 3일전인 10월23일 시작, 일주일간 계속 되었다.

첫날 3백여명의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 모여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이 시위는 서울사대 생물과 4년 이상대군등 6명의 학생들이 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도중 흥분한 학생들은 시위를 저지하는 대학교수들과 사무직원들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1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됐다.

시위가 고조되자 학생들은 평소 친정부 적인 교수들에게 돌과 인분이든 병들을 던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시위때 배부된 전단에는 몇몇 친정부 교수들을 학원에서 추방되어야 할 "민주 학생들의 적"으로 규탄하였다.

대학당국은 이 10.23 시위는 사전에 계획되었으며 시위주동 학생들과 가까운 교수들, 학생회 간부들은 이번 시위를 미리 통고받고 시위현장에 나타나지말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일주일간계속된 축제의 클라이막스인 30일(금)까지 계속되었다.

금요일 하오 대학본관에서 종합축제가 열릴즈음전교 학생들은 행사를 거부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을 분산시키려는 교수및 직원들에게 돌울던지며 시위를 계속했다.

폭도화된 학생들은 단상으로 밀어닥쳐 마이크를비롯, 여러 장식들을 부수는등 사태가 험악하게 되었으나 경찰이 페퍼포그를발사하자 얼마후 해산됐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한국의 대학가는 최근가열된 반정부시위로 다시술렁이고 있다.

# Can-Am태권도 대회

## 4백여 선수 모여 성황

(런던)제5회 Can-Am 태권도선수권대회가 홍성인 태권도학교(런던소재) 주관으로 24일 웨스턴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 각지에서 온 400여명의 선수와 세계태권도연맹 산하의 사범들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한이번대회는 하오7시부터 결승전을 시작했다.

이에앞서 열린 기념식에는 신용규 목사(런던한인교회)의 축기도, 헨리·보겔생 판사, 케네스·로빈슨 캐나다태권도협회 고문(연방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결승전 중간에있은 시범경기에서 홍성인도장 문하생 존김(5세)의 열차기 송판격파는 많은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형과 대련에서 선수들은 저마다 기량을 다해 선전분투하였고 세계태권도 연맹경기규정에 의거한 사범들의 공정한심판은 대회를 더욱 값지게 했다.

결승전실황은 런던 CFPL-TV에서 중계했다.

형, 대련 유단자 결승전적은 다음과 같다.

◆ 형 : 2단이상
1등 제임스·홍 런던
2등 데니엘·홍 〃
3등 마크 맥카시 로체스터
1단
1등 알 로이드 브램톤

◆대 련 :
라이트급 1등
모리스·큐레터 런던
라이트미들급 1등
데니엘·홍 런던
미들급 1등
조지·피터슨 디트로이트
라이트헤비급 1등
바니·홀링워스 싸니아
헤비급 1등
필립·홀혼 키치너

# 좌초 소련잠수함 검색

## 스위든해군, 자국해안 접근이유 검색

**〈스톡홀름-UPI〉 해군과 육군으로 구성된 스위든 검색반이 30일 스위든해군함정의 엄호를 받으며 발틱해의 스위든해군기지 앞바다에 좌초돼있는 소련잠수함에 승선, 검문을 시작했다.**

**스위든의 칼스크로나해군기지 참모장 칼·앤더슨대령은 수명의 군·경으로 구성된 심문반을 이끌고 좌초된 잠수함에 승선했는데 앤더슨대령은 우선 소련잠수함장 피오도르·구신(35)에게 스위든해군기지앞까지 무단접근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초된 소련디젤추진잠수함에는 정치위원 1명이 타고 있으며 아마도 스위든내의 군사정보를 캐기위해 너무 육지가까이 접근했다가 좌초된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위든해군기지대변인은 스위든심문반은 무장을 하고 소련잠수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심문반이 소련잠수함에 승선하는것과 관련하여 스위든 소해정, 어뢰정, 초계정등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발사준비를 한채 소련잠수함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스위든심문반들이 소련잠수함에 접근할때쯤 소련 구축함 2척이 발탁해 외곽의 공해상으로 접근해왔으며 스위든해역에 소련함으로 보이는 한 잠수함이 들어와 스위든 해군을 긴장시켰다.**

**스위든은 이에앞서 좌초된 소련잠수함의 구조를 위해 스위든구조대가 이를 인양하여 일단 칼스크로나 해군기지로 끌고올것을 소련측에 제의하여 소련측의 동의를 얻었다.**

**소련은 잠수함이 좌초된 즉시 칼스크로나외곽 공해에 인양선을 대기시키고, 스위든 정부로 부터 좌초잠수함의 인양허가를 기다렸으나 스위든은 소련인양선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위든 수상 토브존·팔딘은 스위든해군이 소련잠수함을 인양한후 이를 확실히 소련측에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반환시키는 좌초경위를 조사한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유명 조각품 감상

## 11월7일부터 아트·갤러리에서

「고갱」부터 「무어」까지 세계적 조각가들의 조각품들을 온타리오 아트·갤러리에서 감상할수 있게 되었다.

고갱부터 무어에 이르는 근대조각가들의 조각의 고전주의를 촛점으로한 이번 전시회는 서양예술사의 중요발전사의 한면을 볼수있는 좋은 기회다.

전시회는 11월7일부터82년1월3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 출품작은총 137점으로 조각 87점, 판화, 뎃상, 사진이 50점이다. 작가는 모두 22명으로 고갱, 로뎅, 피카소, 브랑쿠시, 마티스, 모디글리아니, 엡슈타인, 가우디어-브르제스카, 커크너, 슈미트-로틀루프, 립취츠, 지아코메티, 에른스트, 곤잘레스, 무어등이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고갱과 피카소및 무어세대의 관심사였던 고전예술및 이집트, 수메르및 극동지방의 선사시대예술의 발견과 결과적으로 1880년대 말부터 1960년대 까지 일련의 서양예술의 극적인 방향변화를 보여주는데 있다.

입장료는 $1.50이며 예약표는 없다. 단 캘러리회원들은 무료 입장

## 밍크 할인판매 미도파 백화점

토론토의 선물점 미도파백화점(사장 장추신)은 밍크 할인대매출「특별쇼」를 실시한다.

오는 11월6일(금)~9일(3일간)공장도 가격으로100여종의 밍크및 모피제품을 제공한다고……

또한 동 백화점은 이번에 보석및 귀금속부를 신설했다.

## 화장품 딜러쉽 획득

### 김씨, 가게 또하나 열어

토론토의 보석·귀금속상 김용섭씨(은하보석상경영)는 블루어 거리에 또하나의 업체 블루·진 가게를인수, 고급 화장품점겸 Costume Jewellery가게로 개조 개업한다.

김씨는"만2년간 고대한 고급화장품 Dealer Ship을 한인계 최초로 받게되어교민들께 직접 싸게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중에 가게를 꾸며12월 오픈예정으로 있다.

## 〈영화안내〉 Rich and Famous

# 대학동창생의 우정과경쟁

## 비세트와 버겐 연기 볼만해

아름다운 두 여배우 재클린·비세트와 캔디스·버겐을 함께 주연시켜 노장 죠지쿠커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원래 43년도 영화「OLD ACQUAINTANCE」를 다시 제작, 여성해방주의 사상을 가미, 현대화 시킨 것.

신화적인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가 맡았던 역을 재클린 비세트가, 미리암 홉킨즈가 맡았던 역을 캔디스 버겐이 각각 맡았다.

리즈(재클린 비세트역)는 독신녀로 존경받는 예술가형 소설가이고 그녀의 절친한 동창이자 격렬한 경쟁자인 메리(캔디스 버겐)는 의사 남편과 딸 하나를 둔 가정주부로 문단에 등장, 유명해지고 싶어 갈망하는 여성이다.

UCLA대학 야외강단에서 이미 유명해진 리즈가 강사로 나오고 메리는 딸을 데리고 와 리즈를 만난다.

결국 리즈의 도움으로 문단에 등장한 메리는 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설을 쓰고 크게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예술성없는 소설을 쓰는 것에 항상 불만, 생활을 멋있게 살려고 애쓴다.

이런 메리의 경망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메리의 남편은 반발, 이혼을 선언하고 떠나가 버린다.

리즈와 메리 두사람은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은 상태로 서로 의지하며 뉴욕에서 살면서 각자의 인생에 대해 회고하면서 리즈는 결혼을 하고싶어하고, 메리는 문단에서 주는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 끝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

그러던중 리즈는 18세 미소년을 만나 그와 관계를 갖고 결혼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소년은 메리의 딸과 가까워지고, 눈오는 날 리즈는 자신의 커네티컷 서가로 떠나가 버린다.

결국 문단 최우수상을 따낸 메리는 리즈의 커네티컷 서가로 찾아간다.

둘이 동성애적인 포옹을 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나는데, 리즈역의 재클린 비세트는 유럽여성답게 논리정연하고 차분한 연기를 하고 있고, 캔디스버겐은 수다스럽고 좀 호들갑스런 역을 잘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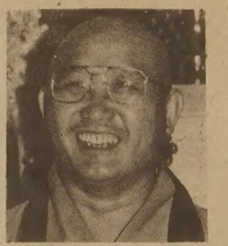
원래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캔디스버겐은 리즈역을 맡고 싶어했으나 감독인 쿠커가 「스타팅 오버」에서 코믹한 연기를 잘 해낸 그녀에게 메리역을 맡긴 것.

이 영화에서는 리즈의 좀 비정상적(?)인 성경험이 부담감없이 잘 처리되어 있으나 미소년에게 반해야 할 이유가 납득가지 않는다.

관객대상급수 R.

# "인간과 우주의 근본원리"

## 해원스님, 불광사 대법회



◇숭산·해원 스님

토론토의 불광사(주지석광옥)는 오는 15일(일) 하오7시 숭산 해원스님을 초청,「인간과 우주의 근본원리」란 제목으로 대법회를 실시한다.

해원스님은 미국, 캐나다, 유럽에 선방(Zen Center)를 갖고 있으며, 이번 온타리오 젠센터의 초청으로토론토를 내방, 3일간 캐네디안들의 참선을 실기로 지도, 교민들을 위한 법회를 불광사에서 갖게 됐다.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폴랜드등지의 순회법회를 마치고, 캐나다를 거쳐 미국순회법회를 가지게 된다.

공산국인 폴랜드에도 7개의 한국절(대한불교 조계종)이 있고, 책코에도 한곳이 있어, 해원스님의 지도아래 그의 제자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오는19일 하오7시30분 온타리오교육회관 에서 참선에 대한 영어강의도 실시한다. 일반교민의 참가를 바라고있는 불광사의 법회계획은 아래와 같다.

●11월12일 하오7시~15일 정오 : 「참선용맹정진」
●15일 하오7시 : 대법회
●19일 하오7시30분 : 참선강의(온타리오 교육회관)

# 중동지역 역할 강화하는 미국

## 사다트피살후 소련세력확장에 대처

▲사다트대통령이 암살된후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0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표는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사망이후 중동지역에서의미국 군사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레건 대통령은 사다트 대통령이 지난 10월6일 암살된후 급변하는 중동전세에서 소련의 세력확장에 대처,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 새로운 군사적 약속을 하고 있는것.

미국 정부가 발표한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이집트, 수단, 가능하면 중립 아랍국가들과 공동으로 1개월간의 군사기동훈련을 실시, 중동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시의 미국의 대응책을 시위하며 2대의 공중경보기(AWACS)를 이집트에 파견, 리비아의 침공위협을 받고있는 수단을 지원한다는 미국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레건정부는 현재 상원이 다루고 있는 대사우디아라비아 무기판매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백악관의 실력자들을 총동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아이젠하워 독트린」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중동지역 무력침공을 방지키위해 미국이 돕는다는 선언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헤이그 국무장관은 중동지역에서 위협을 받고있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및, 군사원조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으며 소련의 파키스탄 침공위협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비친바 있다.

미국 정부는 만약 수단이

### 페르샤만 위기시 미군 직접 개입할지도…

### 군사기동훈련「밝은별」로 군사력 과시계획

리비아의 침공을 받을때는 미군이 직접 개입치 않고 이집트-수단의 방위조약에 맞춰 간접적으로 수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표하고 있지만 일부 전략가들은 페르샤만의 미 우방국가가 위협에 처했을때 미군이 직접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레건 대통령이 이같이 중동지역의 미국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이란의 팔레비왕이 실권한 후 3년이 채되지도 못해 사다트 대통령을 잃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우스 예멘, 이티오피와 함께 극단적인 동맹관계를 맺은데 대한 미국 군사력 과시를 위한 것으로 11월9일-12월6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인 대규모 군사기동훈련 「밝은 별」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 수단과 오만, 소말리아도 참가하게 될것으로 예상되는 기동훈련「밝은 별」에서는 미82공군이 이집트 서부 사막에 공수부대를 투하시키며 노스 다코타주에있는 B-52폭격기가 이집트까지 논스톱으로 출격한후 기지로 귀환하는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동시에 미 해군은 오만과 소말리아에 있는 미군기지를 기점으로 이와관련된 기동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다.

미국은 이번 기동훈련에서 미 군사력의 기동성을 과시하는것 외에도 중동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발했을때 미군이 사용할 기지 확보에도 속셈을 갖고 있는데 군사기동훈련「밝은 별」의 성패에 관계없이 폭발위험성이 있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미국이 군사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소, 무인금성탐색선 뷔너스B호 발사

**〈모스크바-UPI〉 소련은 30일 무인금성 탐색로케트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소련관영타스 통신은 이날 금성탐색선 『비너스-13호』가 성공리에 발사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비너스-13호』는 오는 1982년 3월에 금성에 도착, 각종과학정보를 보내올것이라고 말했다.**

가수의 노래보다 육체미에 더열광
전국교도소를 순회하며 위문공연을 하고있는 프리스트리트극단이 최근 시카고의한교도소에서 공연하는 모습。죄수들은 이 가수의 노래보다는 육체미에 더욱 열광했다。

# 우드뷰·팍 도서관

## 노스욕서 2번째 한국도서

한국도서를 읽고 싶어하는 교민들에게 회소식이들어왔다.

노스욕에 있는 우드뷰·팍 커뮤니티 도서관(Woodview Park Community Library)은 노스욕에서 2번째로 한국도서를 비치했다. 핀치와 웨스턴에서남쪽으로 2블럭 지점에 위치한 동 도서관의 주소는 16-18 Bradstock Rd.

이 도서관은 2년전 노스욕에서 처음으로 한국도서를 비치한 욕우드 도서관(1785 Finch Av W.)이이번 한국에서 신 도서를 구입함에 따라 보류하고있던 5백여권의 한국도서를 우드뷰·팍 도서관에 이양했다.

현재 메트로 토론토에는 노스욕의 두곳 외에도 센트랄 도서관, 스카보로, 미시사가 도서관이 한국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우드뷰·팍 도서관은 6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2개의 홀이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이 홀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예약을원하는 그룹이나 단체는 동 도서관으로 직접 연락(전화742-7242)하거나 노스욕 도서관에 근무하는 박승락씨(전화 667-1060)교환 49)에게 연락하면 된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1982년 Y's MENS
서울세계대회 공연 합창단원 모집

토론토 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후원이사진을 구성하고, 지휘자 안병원 선생(전숙대 교수 : 「우리의 소원」작곡자)과 반주자 김진숙양(토론토음대 졸)을 모신 본 Y.M.C.A. 합창단은 82년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Y's MENS세계대회에 참가, 공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으로 전세계 대표들에게 캐나다 교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전국 주요도시 순회공연, 모국 라디오및 T.V.출연등의 행사로 모국 국민에게 큰 감명을 주리라 믿습니다.

음악에 소질있는 남녀 젊은이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아 래 —

자 격 : 25세 이하의 남녀로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
모집인원 : 약 30명
신청마감 : 1981년 11월 14일(토) 하오5시
신청장소 : KOREAN Y.M.C.A. (536-1166)
(ST. CLAIR와 OAKWOOD동북쪽 1블럭)
심 사 : 1981년11월14일 하오5시30분
기 타 : 한국방문시 비행기표 자담(일부할인), 숙식비 일체 무료
이사명단 : 강광선, 강찬영, 강학수, 구상회, 김광웅, 김명규, 김문고, 김순창, 김종욱, 김창열, 김태진, 김태현, 송관현, 송의섭, 안병원, 유영갑, 유형승, 윤여경, 이석현, 이영일, 이장우, 이축길, 전대균, 조덕남, 조성호, 조한철, 차선경, 최호영, 최희홍, 한광건, 한상훈, 홍승규.

Y.M.C.A. 합창단 후원이사회장 이 영 현
총 무 호 세 환

배달 사고를 줄입시다

한국일보는 주5일 발행되어 발행된 당일 토론토 남단 사우스·센트럴 우편물 분류공장을 통해 전국 독자에 발송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또 요일에 따라 배달이 지연되고 2~3일치를 함께받는 독자들이 있어 퍽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신문이 신속 정확하게 배달될수록 구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은 명확하므로 이 사실 하나만을 위해서도 본사는 더욱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우편제도는 선진국치고는 퍽 뒤떨어져 있어 본사의 노력만큼 배달 사고가 줄지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배달사고를 막기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신문에 찍힌 주소와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요.
아파트 번호, 우편번호를 확인할 것.
비슷한 이름이 동일건물에 또 있을 경우(예 : Kim, Lee, Park) 성명(Full Name)을 확인할 것.
②임시배달부가 배달할 경우 또는 배달부가 바뀔 경우에 대비, 아래 절취선을 오려서 배달부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편함(Mail Box)에 붙이십시오.
③관할 지역우체국의 감독관(수퍼바이저)에게 전화, 편지, 또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십시오.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신문은 2종 우편물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1종 우편물 처럼 배달을 해주지 않읍니다.

한국일보

# 예술의 향기 ⑤
## 식당에서의 화제

유 회 자

저녁 7시에 세미나가 끝나면 북미사람들이나 유럽사람들은 부지런히 저녁먹을곳을 찾는다. 우리 참가자들이 즐겨 가는곳이옥외 덩굴나무 아래에 마련해놓은 피자집이다. 주로 외국에서온 사람들이 이곳에모이곤 한다. 스웨덴, 독일, 필란디아, 네델란드, 일본, 한국등이 우리 테이블에모인 국적이다.

영어가 주로 쓰이지만북구에서 온 사람들은 독일말로도 한다.

테이블에 앉으면 으레포도주가 나와 모두 건배를한다. 스콜, 잎피시, 취어스, 축배 등등 자기나라 말들을 하고는 서로 흉내내기도 한다. 내 옆에 앉은 세청년과 깨끗한 아가씨는모두 한 고장에서 왔는데, 프러시아 언어를 한다고한다. 어디에있는 나라냐고 물으니 소속은 네델란드 이지만 화란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지역으로 인구 80만이 자기네 고유언어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언어가 문자없이 가정에서 말로만 전해 내려오다가 겨우 수년전부터 자기네 알파벳을 만들어 성경도 처음으로프러시아 언어로 나오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화란어이외에 읽고 쓰는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80만의 인구가 화란이라는 나라안에 살면서 자기네 언어를 문자없이 몇백년동안 계승해 내려왔다니, 그리고 요즘에서야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를 만들고 가르친다니, 나는 산 역사를 공부하듯 아주 흥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 저쪽에 앉은 스웨덴 학생들도 자기네 언어이야기를해준다. 스웨덴과 필란드는 서로 이웃에 있는 나라고, 사람들도 서로 섞여서 살고있 지만 공통된 말이 20~30개가 있을까 한 정도이고, 완전히 서로 다른말을 한다고 한다. 필란드는 600년을 스웨덴 아래서, 100년을 러시아 밑에서 지배를받고 지내왔지만 다른언어와 전연 섞이지 않은 자기 고유의 언어를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600년동안 한국을 지배했었더라면 우리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우리북미에 이민온 한국민족들도 몇백년 후엔 우리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을것인가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국제적인 모임일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나는 캐나다의 시민권은 갖고있지만 누가 나를봐도 캐네디안으로 보지않고, 오리엔탈에서온 중국인 아니면일본인으로 보는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한국인인데 현재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노라고 설명하는것이 순서가 된다. 이 아카데미가 시작된지 7년이 되는동안 아마 한국인은 내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또 언제 한국인이 올지는 궁금한 일이다.

외국생활이 20년이 가까워가고,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캐나다 시민이 되었어도 나는 한국인임을 벗어날수도 바꿀수도 없음을 더욱 확고하게 느끼게 해준다.

음식을 먹는동안에 화제는 언어이야기 부터 시작해, 음식이야기 까지 번져가노라면 한국의 김치이야기도 빼놓을수 없다. 외국인 중에서도 매운것을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 한다.

이태리 정식 디너는 스파게티나 피자등 밀가루음식이 제일 첫 순서가 들어가있다.

김치 이야기를 하며 스파게티를 맵게 해 달라고 해서 특별주문을 해 먹어본다. 김치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 에게 이정도매운것은 김치의 10분의1도 안된다고 하니 더욱김치에 대해 흥미를 품는 모양이다.

이태리정식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한번 정식 코스를 기록해 보면 포도주로 시작해서(1)스파게티, (2)고기, (3)감자나 채소, (4)살라드, (5)치스나 과일디저트등의 다섯코스에 커피로써 끝맺음을 맺는다.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으니 살이찌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미에서보듯 살이 많이찐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정식 디너를 자주 안먹는지도 모른다. 우리도 보통스파게티, 살라드, 디저트정도로 간략해서 먹어도 충분한 저녁이 된다.

(계속)

## 교 민 동 정

◆김용순(김용순무용연구소장)=병중에 고생하는은사방문겸 내년6월 예정인 발표회 준비를 위해 1일고국방문, 22일경 돌아올 예정이다.

◆차선겸·김이열·조기연=오는 11월27일 실업인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더욱 분주해졌다. 회장에 출마키로 결심한 차씨는 부회장후보' 김씨, 조씨를 대동, 본사에 들러 오는 11월초 입후보등록에 이어 본격적 선거준비를 해야겠다고….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 (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단 편>
# 모 래 성 (1)

박 성 민 (문협회원)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노란 완장이 유독 눈에 띄는 방위복이 자꾸만 흐르는 땀에 아예 푹 젖어버렸다. 갓 들어간 말단졸병의 처지로서 지금쯤 중대본부 뒤 대포집에서 시원한 냉막걸리를 마시거나 중대장실 소파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을 악질 고참들을 대신하여 예비군 훈련 소집장을 돌리기란 여간 지겨운 노릇이 아니었다. 그리고 동네가 동네인만치 돌리기가 힘이 들었다.

이제 막 서울시로 편입된 도시계획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집이라기 보다는 움막이 무질서하게 산등성이에 난립되어 있었다.

브룩 몇장과 판자조가리 몇개로 며칠새로 집이 세워지는 그런 동네였으므로 길거리는 전혀 포장이 안되어 있었고 하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심지어 어떤 골목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골목 가득히 널려 있었다.

그러한 사정은 산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했다. 대개의 집이 문패가 없을 뿐더러 번지수조차 엉망으로 되어 있어 제 주소를 찾아가 소집장을 돌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설사, 오랜 경험으로 일이 익숙해졌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배치 받은지 겨우 일주일이 넘는 기영으로선 고생깨나 해야 되는 일이었다. 대개가 하루살이 벌이를 위해 온 식구를 동원해야 되는 처지였으므로 간신히 주소를 찾아갔어도 아무도 없기가 일쑤였다.

오늘따라 돌리기가 더욱 힘이 들었다. 그것은 훈련에 세번 이상 불참한 자들을 위한 특별훈련 소집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소집장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예비군 훈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에게 형사처분에 넘기기 전의 마지막 경고장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동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이거나, 예비군 훈련에 아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니면 서류가 잘못되어서 직장예비군 중대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고정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동네에는 별로 없었지만….

몇차례 허탕을 치고 나자 기영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짜증은 무더운 날씨로 더욱 증가 되었다. 더우기 그의 짜증은 중대본부 뒤에서 냉막걸리를 마시고 있을 고참병에 대한 불만과 합쳐져서 일종의 분노로 변하였다.

"개새끼들!"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 똑같은, 속되게 말해서 X도 방위로서, 삼천만의 호구로서, 조금 먼저 들어왔다고 그 어떤 특권의식을 누린다는 게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긴 방위도 일종의 군대인 바에야 상하의 명령체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야겠지만, 계급도 없는 처지로서, 결국 남들은 훈련소를 나오자마자 받는 그 찬란한 이등병의 계급장을 일년간의 복무를 끝마치고 받는 주제에 서로 이병이라는 호칭을 가불해다 붙이는게 우스웠다. 그것도 이병이면 똑같은 이병이지 몇달, 심지어 며칠 먼저 들어왔다고 누구는 이병님이 되고, 누구는 이병이나 때로는 "야! 이 새끼"로 불리워야 한다는게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쉽게 받아 들여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난 뒤의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구분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일종의 권리남용인 경우에는 부당한 몫까지 떠맡아야 하는 약자의 처지로선, 떠맡은 일을 별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리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자꾸 가슴속에 싹트는 불만을 혼자 삭이는 수밖에 없었다.

(계속)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㊲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들 작은 돌 틈바구니를 들여다 보면 어린애의 작은 뼈들이 보인다. 무덤위에는 가장좋은 사슴가죽으로 만든 옷가지 고깃덩이 나무조각을 깎아 만든 장난감, 아주 정성들여 만든 장화등의 썩은것들이널려있다.

이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오래전 한겨울에이 호숫가에 세식구가 살았다고 한다. 어느해 그집 아버지되는 사람이 갑자기가 닭모를 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어 가을사냥을 끝마치지 못해 겨울을 지낼 충분한 고기를 저장하지 못했다. 그해는 진눈개비가 일찍와서 굶주림도 일찍왔단다. 그 이야기는 개들이 어떻게 잡혀먹히고 드디어는 부인혼자서 겨울의 바램을 걸어 열흘이 걸리는 친척집에 가서 도움을 청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할미우트는 그 여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각오를 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어린애를 데리고 갈수없고 단신으로 갈 작정이었다. 여인은 또한 어린애가 아직 젖도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를 먹일 식량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남편이 너무 병이들어 아이를 돌볼 기력이 없으므로 혼자 떼어놓고 갈수 없음도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하여 전혀 얘기는 없었지만 그여인이 결심을 하자 어떻게 캠프를 떠났는지는 설명이 되어있다. 남은 식량을 모두 긁어모아 남편이 누워있는 침랑곁에 놓아두고 갓난 아기는 눈속에 파묻어 버렸다. 그여인이 친척집에도착하기는 거의 두주일이걸렸다. 오일간 그녀는 눈앞을 가리는 심한 눈보라 속에서 걸었다. 그녀는 꼬박 굶은채로 거의 배마일이나 걸어서 결국 친척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illegible]칠후에 여인의 오라버니가 개팀을 몰고 이 호숫가에 여인과 함께 돌아와서 앓고있던 사람이 구조되어살아났다. 그후 수십년이 지나 이 부부는 많은 아이를 낳고, 지금도 이땅에는 이들이 아직도 살고있다.

이 부부는 해마다 이른 봄철이되면 이 먼 호수가에 찾아와 첫아이의 무덤위에 새로만든 옷과 음식, 장난감등을 놓고 갔다.

성 관계에 있어 상대를 가리지 않아 생긴는 범죄도 있다. 그러나 에스키모와 지낸 나의 경험으로 보면 이누이트의 세계에서는 혼음이 우리사회에서처럼 추잡한 행위가 아니다. 아내를 공유하는것이 난잡한 혼음이라고 표현되었을뿐이다. 혼외정사 또는 비밀리에 본부인외의 다른여인과 동거하는것 같은것은 백인사회에 속하는 것이지 이할미우트에게는 그런것이 없다. 그들이 아내를바꾸는 일은 고통스러운 생활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계속)


토론토시

현 충 일
1981년 11월11일 (수)

쓰레기 수거 변경일

수거없음 (수) 11월11일
수 거 일 (수) 11월18일

신문지나 부파있는 물품(냉장고, 체스트 휠드, 메트리스, 나무나 솔등)은 11월11일 (수)에는 수거치 않읍니다. 11월18일 까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8군데의 병과 쇠붙이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 367-7742로 문의 바랍니다.

지난 9월동안은 393톤의 신문지와 38톤의 유리와 5½톤의 깡통등이 수거 되었읍니다.

R. M. BREMNER
P. Eng., F. I. C. E.
건설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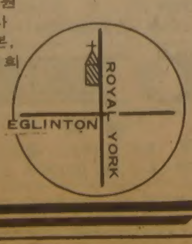


가나안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어찌하여 자느냐"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귀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백화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져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1월13일(금)
〃 14일(토)
〃 15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가나안 장로교회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로얄·욕크와 에그린톤 만나는 지점에서 한 골목 북쪽)

강 사 : 백 화 기 목사
강사소개 : 학력― 대구 개명대학 졸업
한국신학대학 졸업
침례교 신학대학및 대학원졸업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 졸업
경력― 포항침례교회 담임
영남침례신학교 교장
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부흥사협회 회원
사모아 선교회 이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지 부흥집회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정준및 교인일동



1982년도 한인소록을 위촉 제작하기위한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아 래 ―

1. 자격은 토론토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인쇄업을 전업으로 하는자.
2. 주소록은 5,000부로 하되, 제작 납부일은 1982년2월28일 이전까지로 한다.
3. 공탁금 2,500달러(정확한 주소록을 제작키 위한 조건임)
4. 광고수입중 약간의 %를 한인회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주소록 규격은 81년도 한인주소록에 준함.

입찰일시 : 1981년11월17일(화) 오후2시
입찰장소 : 한인회관
문 의 처 : 한인회로 연락바람

토론토지구 한인회장
박 인 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 : 535-4441 MRS. 김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OAKWOOD & DAVENPORT
☎ : B) 656-3020, R) 960-0761

입주하여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볼링톤(볼링톤지역 출퇴근가능)
☎ : 665-2866(토론토), 639-2736(볼링톤)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급 구"
① 운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운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 : 244-5248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오전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입주하셔서 두아이와 살림을 도우실분 구함 :
주 : 210달러 드림
☎ : B) 248-4013, R) 244-0765

허드레일 하실분 구함
오리엔탈 파레스
☎ : 533-3545

영어에 능통한자로 1년6개월이상
MEDICAL SECRETARY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연락처 : 493-4468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주말에 일할 여학생 캐쉬어 구함 :
스카보로 지역
☎ : 438-1528

토요학교 밴 운전하실분 구함 : 토론토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분, PAY : $30(약4시간 소요)
☎ : 960-0074 씨알한국인학교

버라이어티 스토어 헬퍼구함 :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4시~8시반까지
☎ : 368-8147. 39 BELSHAW PLACE.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구함 : FRUIT MARKET
744 DUNDAS W. Dundas×Bathurst
☎ : 368-8077, 491-3623(밤9시이후) MS. LEE

풀타임 남자 가게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4-6311(B), 284-8862(R)(오후4시이후)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출퇴근 하시면서 4개월된 애기 보아주실 분
스카보로지역(미드랜드×핀치)
☎ : 299-1103(오후5시 이후 전화요함)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 매매및 양도

이주관계로 팝니다. 희망자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STEAK식당,
6일매상 2,000달러(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UR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셀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74년형 BUIKE : 뉴페인팅, 보증서있음
A-1 CONDITION.
☎ : 759-3923

TUCK SHOP을 꼭 원하시는분은
☎ : 749-1316 으로 연락바람

플라자 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600, 아스킹 $32,000, 리스8년+옵션
☎ : 255-5038 미세스 BORDA

그로서리 스토아와 아파트매매 : 그린우드 레이스 트랙에 있음. GOLD YEAR REALTY의 JOHN CHING 에게 연락바람 ☎ : 960-4610, 977-6347

KNOB HILL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습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드라이크리닝 가게세일
세일 $145,000 FOR YEAR,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50,000, 오렌지빌 내에 있음(미시사가에서 30분거리), 38년간 운영된 이익좋은 비즈네스임
몬트리올·트러스트 CO. DAVE LAL(데이브·랄)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비즈네스를 갖고있으니 문의바람.
☎ : 275-5555, 276-3229

이윤 좋은 가게 팝니다
(+집)
☎ : 465-4385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도나스 샵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or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
가격 : $6,900+스탁
☎ : 657-1424, MR. CHRIS(크리스)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크로스웨이 꽃집(선물)팝니다
가격 : 17,000달러, 영업시간 짧고
일요일 휴업
☎ : 535-1355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코메스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연간 세일 : 백만달러
리자이나 지역에 있음.
토론토연락처 : 624-1289 미스타 정

가정형편상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포함
☎ : 656-7753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캄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1 베드룸(살림할수있음)
BLOOR ST. W. 중심가
☎ 533-0168(PM1시~PM9시) 미스타 김

##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자동차 고장 ? ?**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SOO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헌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 Languages Service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over 70 Languages
French for the Quebec Market
Suite 1105, 67 Yonge St., Toronto, Ont. M5E 1J8 361-0303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합)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 카펫·카텐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 기 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리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국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광고접수 안내**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이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월~금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부

#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 완全한新聞

# 올秋穀값 14%引上결정
## 가마當 2等品 5萬2千百60원 6百萬석수매
## 來11월5일부터 全量을 現金으로 支給

정부는 29일 금년도産 秋穀 收買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14%인상하고 收買量을 6백만석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하오 申秉鉉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高建 농수산부장관이 全斗煥 대통령에게 금년도産정부추곡收買방침을보고하는자리에서 최종확정되었다。

이에따라 금년도추곡 收買價는 지난해의 80㎏들이 1등品기준가마당 4만5천7백50원에서 6천4백10원이 오른 5만2천1백60원으로 인상된다。

올 추곡수매는 오는11월5일부터개시, 수매대금은 전액현금으로 지급하며,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 國政조사特委案 폐기
## 국회運營委 票對決서 11對10

◇起立표결로 29일하오 국회운영위의 低質연탄과 人權문제등에 관한 2개 國政調査特委구성 결의안투표에서 民韓 국민 議政同友會 의원들이 「찬성」의 起立투표를 하고있다。

국회 運營委는 29일 民韓黨등이 제출한 「低質연탄및 부정공무원에대한國政調査特委구성결의안」과 「人權문제에 관한 특위구성결의안」등을 놓고 논란을벌인끝에 起立투표에붙여 찬성10, 반대11표로 각각 否決, 폐기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民正黨의원들이 모두 反對票를 던진반면 民韓 국민 議政同友會의원들은 찬성했다。

이날 表決에앞서 人權문제 조사特委에대한 토론에서 沈明輔·李漢東의원(이상 民正)등은 「不確定事實에대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를 규정한 헌법97조에위배되며 현실적으로 인권침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반대했고 高在淸·趙尙行의원(이상民韓)은 「논란이되고있는구체적事案을조사하는것이 어떻게불특정사안이라 볼수있는가。 法의理想에 현실을맞춰가는것이 민주주의인데 법의이상을 현실에맞추려는것은 語不成說」이라고 특위구성을주장, 11代 국회에서 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표결에 부쳐 폐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李鍾贊운영 위원장은 이들 2개 결의안이 폐기된직후 「국정조사권이 앞으로 적절히 발동될수있도록 노력할것이나 정치적목적이나 이유로 濫用되어서는곤란하다」면서 「앞으로는 常任委에 이들문제처리를 위임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高在淸民韓黨총무는 국정조사권 발동이 좌절된데 대해 실망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人權및 저질연탄사건에대한 책임을 물을것인지와 관계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해당常委에 맡길 것인지의 여부를 빠른 시일안에 黨공식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작·검열自由化등 映畵法개정안 제출

金泰洙의원(民韓)등 23명의 의원들은 28일 현행 영화제작업의 許可制를 登錄制로 전환, 自由化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映畵法改正案을 國會에 제출했다。

이 改正案은 ▲文公部장관의 영화검열권을 公演倫理委員長에게 주도록하고 ▲不實히운영되고 있는 영화배급협회를 해제, 그 업무를 영화진흥공사에 이관하며 ▲영화진흥공사운영에 전문가들이 참여할수 있게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 常委질의·답변
# "취소刊行物 復刊검토"
# "감호施設확충 시급"

국회는 29일 豫決委를 속개하여 追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追更案을 통과시키는 한편 外務 內務 國防 文公 農水産 商工 建設등 6개常委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豫決委**: 財정부질의를 마치고 總규모1천9백75억원의금년도 追更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30일부터는 80년도 決算案및 예비비사용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李鍾元법무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대해 「현재 보호감호대상자는 5천여명이나 이중 1천5백72명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있어 감호시설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文公委**: 李光杓문공장관은 지난해 7월31일자로 등록취소된 定期간행물은 현행법에 하자가 없는한 등록취소된 발행자가 이를 다시 신청해 올경우 復刊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거없는 流言蜚語가 퍼진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현행 언론기본법과 관련, 『언론기본법은 법자체나 법운용과정에서 현재로서는 큰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農水産委**: 姜仁燮농수산부차관은 「二重穀價制는 양특赤字의 단계적 해소방침에 따라 86년까지 실시토록 돼있다」고 밝히고 「秋穀價 豫示制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농산물가격 예시제는 점차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81년에는 營農後繼者 교육을 1천8백76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86년에는 2만명, 80년대말 4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쇠고기를 연2만두를 수입하는 것보다 송아지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料金 안내린다"
### 京仁·京釜 高速道

**建設委**: 金周南건설부장관은 『앞으로 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방식을 계몽위주로 전환하겠으며 京釜·京仁고속도로의 借款상환이 거의 끝난단계이나 나머지 고속도로가 막대한赤字운영을 하고있어 京釜·京仁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각 業體의區間別 落札額이 정부의 內定價보다 평균20% 밑도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업체가 자체遊休장비와 인력을 가동시키는것이 유익하다는 계산아래 적은액수를 신청한 것같다』며 『정부로서는 예정가보다 낮은落札價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監督요원을 증가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五輪앞서 「푸른서울」造成"
## 25坪內 無許건물과태료 안내

**內務委**: 朴英秀서울시장은 無許可건물陽性化계획에 따라 서울시내 무허가건물 15만4천棟중 50%를 再開發지구에서 해제시키고 住居用25坪미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지않는반면 非住居用과 25坪이상 50坪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重課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의 綠地帶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푸른서울을 만들기위해 가정마다 3~4本씩의 나무를 심도록하는 한편 학교 공장지대등에 市예산으로 나무를심어 올림픽이 열리는 7년후에는 상당수준의 푸른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朴시장은 또 漢江물줄기를 江중간쪽으로 몰아 양쪽강변을 고수부지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體力단련이나 여가선용에 쓸수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千戶大橋에서 幸州山城에이르기까지 漢江邊이 그대상지역으로 86년까지 공사를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 豫算10%削減노력
### 국민당

국민당은 29일상오 黨務회의를 열어 총9조5천9백56억원의 82年度예산안 규모의 10%삭감을 위해 노력키로 黨論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등 3개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林德圭대변인은 『금년對比 22.3%나 늘어난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물가억제목표 12%보다 10.3%나 높은 팽창예산』이라고 말하고 『내년도 예산규모의 10%線인 9천6백억원을 삭감, 그중 2천5백억원을 교육財源에 충당하도록 노력하기로 黨論을 정했다』고 밝혔다。

## 公正去來 위원장에 韓鳳洙씨 임명발령

정부는 29일 금일까지 경제기획원차관이 겸임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次官級)에 韓鳳洙 총리실기획조정실장을 오는 2일자로 임명발령했다。

韓실장은 경제기획원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옮기게된것은 정부의 기구개편에따라 폐지되는 직위에있던 政務職공무원중 첫케이스다。

◇韓위원장略歷 ▲경기始興출신·54세▲서울대법대卒▲농수산부식산차관보▲총리기획조정실장

## 中小企業銀 行長에 金善吉 상공부次官

정부는 29일 공석중인 중소기업은행장에 金善吉 상공차관을 임명발령했다。

## 韓日親善協대회 2일 서울서

제3차 韓日親善協會합동대회가 양국대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2일 서울국립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측은 31일까지 市道별로 支部를 구성, 1일 市道회장단 모임을 갖고 韓日의원연맹의 李載灐회장과 金潤煥간사장을 친선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定款을 새로 제정,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 警報機판매안可決
## 美上院 사우디에 85億弗어치

【워싱턴28日 AP·UPI=聯】 미상원은 28일하오5시(한국시간29일상오7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판매안을찬성52대 반대48로 가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표결직전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對사우디AWACS판매는 「중동에서의 평화전망과 우리의전략적 지위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대단히 가치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레이건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끌어온 AWACS판매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취임후 최초의 對의회외교정책대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美하원은 지난10월14일 對사우디 AWACS판매안을 3백1대 1백11로 부결했으나 이판매안이 부결되기 위해서는 상하양원에서 모두 과반수의 반대가있어야한다。

이날 상원표결의 승리로 레이건대통령은 5대의 AWACS를포함, 총85억달러규모의 군사장비를 사우디에 판매할수 있게됐다。

레이건대통령은 AWACS판매안 표결직전 상원에보낸 전문8페이지의 서한에서 「미국이 사우디의 AWACS작전및 운용에 오는 90년대까지 개입하는것」등 AWACS판매에 따르는 몇가지 규제사항을 준수할것이라고 확약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서한에서 「사우디정부는 미국이 AWACS를 포함한 사우디방공체제개발에 중요하고 장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직접 개입을 유지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對사우디AWACS판매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레이건 만족감표시
## 이스라엘선 큰失望

【워싱턴29日聯】 레이건 미 대통령은 29일상오(한국시간)상원이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對사우디아라비아판매를 승인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명했다。

【예루살렘·매내마28日聯】 이스라엘정부는 28일 미상원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등 對사우디아라비아 무기일괄판매안을 가결한데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 리비아 美공격받으면 抗戰
## 國境침범하면

【함부르크28日聯】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는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그의 전임자인 故 안와르·사다트 대통령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서독의 주간 「슈테른」지가 28일 보도했다。

가다피국가원수는 슈테른지와의 인터뷰에서 前이집트 공군사령관인 무바라크대통령이 「군인으로서는 매우 훌륭」하나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라면서 그가 만일 미국의 이집트 「지배」를 타파한다면 아랍세계에서 주도적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國이 리비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방어할 것이며 제3차대전이 일어날경우 그 책임은 우리가 아닌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 社告
# 日人「뮤지컬 春香傳」
# 내달21·22이틀 첫來韓공연
## 「호리호크·아카데미」… 國立劇場서
## 李夢龍·成春香등 톱歌手·탤런트로

◇지난달 日本 오오사까에서 공연되어 절찬을받은 「뮤지컬 春香傳」。

일본인들이 일본말로 공연하는 한국의 고전극 「뮤지컬 春香傳」이 오는 11월21·22일 이틀동안 국립극장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일보社 초청으로 갖게되는 이 색다른무대는 일본의 대표적인 「호리호크·아카데미」가 마련한것으로 이미 지난달 일본에서 공연돼 절찬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일본인에 의한 춘향전은 한국고전문학의 향기가 국경을초월할만큼 높다는 뜻이되며,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예술적인 교류에도 커다란 보람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뮤지컬 春香傳」무대에는 李夢龍역의 니시까와 미나꾸, 成春香역의 요시모또·마유미(吉本眞由美), 卞學道역의 쇼후꾸떼이·니까꾸(笑福亭仁鶴)등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가수, 톱탤런트, 만담가등이 총출연하고 있어 이 춘향전의 수준을 가늠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지난 34년간 일본공연예술계를 대표해온 호리호크·아카데미의 대표 스또·게이꼬(須藤圭子)여사는 『한국공연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싶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읍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을바랍니다。

◇會員券
21일·22일저녁
▲S석 10,000원
▲A석 8,000원
▲B석 7,000원
22일낮 공연
▲S석 8,000원
▲A석 7,000원
▲B석 6,000원

豫賣處
▲한국일보사업부 72-1472
▲대한음악사(明洞) 78-0577
▲삼익피아노(충무로) 78-1117
▲세고비아 기타(종로2가) 76-6161
▲이태백안경(회현지하상가) 78-5103
▲종로서적 72-2331
▲교보문고 76-6191
▲뷔엔나안경(서대문로터리) 32-0416
▲광생약국(이대입구) 32-7372
▲중앙악기사(종로2가) 26-7900

## 地平線

『市民은 불안하다』─。 신문 사회면의 제목(29日字본보)이 섬찟하다。 하긴 바로 엊그제 젊은 가정주부 모녀를 죽인 살인·방화사건이 나더니 이번에는 40대 주부를 죽인 방화사건이 일어났고 달러商의 피습등 강도사건도 잦다。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범죄 사건의 많고 적음은 흔히 인구 10만명당 年間발생건수로 잰다。 이른바 범죄발생률이란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올 상반기 여섯달사이 7백24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살인이 47건, 강도가 4백9건, 강간 2백39건등이며 이밖에 절도가 1만2천9백72건에 치기犯은 2천14건, 한강력사건4건, 날치기11.1건, 절도 71건 꼴이다。

▼만일 금년 하반기에 상반기 만큼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가정할때, 서울의 범죄발생률은 살인1.1, 강도9.8, 강간5.7, 절도 3백12란 계산이 나온다。 이 수치대로라면, 서울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東京의 절반 남짓, 강도는 東京의 2배이상, 강간은 근 2배, 뉴욕에 비해서는 살인 20분의1, 강도 10분의 1, 강간 5분의 1 미만이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서울의 절도사건이다。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적다는 東京의 절도발생률이 천9백5, 서울은 그에 비해 16분의 1도 안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고개를 갸웃뚱 하면서, 서울의 절도사건은 신고 누락이 많은것, 그래서 경찰통계가 범죄실태를 잘못 반영한 것이 아닌가에 생각이 미친다。

▼「市民은 불안하다」는 말의 근거는 바로 이런데도 있을것같다。 범죄발생률에 있어서, 서울은 결코 불안한도시가 아니다。 적어도 살인사건은 세계에서 가장적은 편이다。 관광객들도 입을 모아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수있는 서울을 희한해한다。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따로있다고 해야한다。 그것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않는「搜査不信」이라고 생각한다。

▼「搜査不信」의 첫대목은 신고를해도 범인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이런 심정은 곧장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에 대한 不信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시민은 「犯罪無防備」를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럴때 아쉬운것은 경찰의 신뢰회복이고, 「검거는 犯人必捕」뿐이다。 강력사건 빈발에 맞서 경찰에 내려진 방범비상령에 그런 효과를 거두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일보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佛光寺 법회안내
장소: 불광사
지도법사: 석광옥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화: 223-9152

Grant Brown
차가 필요 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598-0451

SAI WOO레스토랑
(西湖酒樓)
「1954년에 설립된 토론토의 가장 훌륭한 중국음식점」
온갖 중국음식을 제공 합니다.
— BUSINESS MEN'S점심
— 파티및 연회환영
— TAKE OUT써비스
— 가족 저녁식사 제공
월~토: 11:30~2:00
일요일: 11:30 ~ 1:00
130 DUNDAS ST.W.
(던다스×베이)
☎: 977-4988~9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 월~토 9:30AM~6:00PM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 월~토 11AM 7PM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416) 222-9480

거구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까지
토, 일: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선남

## 이스라엘, "對아랍戰不辭"

### 샤론國防相 政策연설서 선언

## 이집트의 脫線에대비

### 核제조등「위험스런事態」3項열거

【예루살렘29日AP=聯合】 아리엘·샤론이스라엘국방상은 28일 이스라엘을 아랍국가들과의 새로운 전쟁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세가지의 「위험스런 사태」를 열거하고 만약 아랍국가들이 이같은 위험스런사태를 저지를 경우 이스라엘은 전쟁을벌이지 않을수없을것이라고 선언했다.

샤론국방상은 지난8월 국방상에취임한이후 이날 처음으로행한 중요정책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로운 전쟁으로 끌어넣을지도 모르는3가지의 위험사례는 ①아랍국들의 핵무기획득 또는 제조 ②요르단또는 시리아에대한 이라크의 군사행동 ③시리아軍의 南部레바논침공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의 평화유지를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다 취할것이나 캠프 데이비드평화협정의 조건을 위반하는것은 어떠한것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波總罷業 2題 폴란드전역에서 1시간동안 총파업이벌어진 28일 그다니스크 레닌조선소 노동자들이 조선소입구에 나붙은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포란드 自由勞組가 28일 전국적으로 단행한 1시간동안의 일제파업으로 파업시간인 이날낮12시부터 1시까지 바르샤바中心街는 쥐죽은듯이 고요하다.㊦ 【그다니스크29日UPI·AP=聯合】

## 波、勞組에 協商요청

【바르샤바29日AP=聯合】 폴란드정부와 자유노조는 28일 1시간동안의 자유노조 전국총파업이 끝난후 이 파업과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 보이체흐·야루젤스키는 이날밤 자유노조의 전국총파업을 명백한 어조로 비난한 다음 『국극적인 선과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파업종식과 부정적인 태도의 포기, 그리고 위기를 종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장애제거를 자유노조에 엄숙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루젤스키는 또 친정부단체들로 구성되는 국민연합전선 확대를 위한 자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정부내에 전문가들의 자문기관을 설립하는 확고한 책임이 지어져있다고 강조했다.

28일 자유노조전국총파업 직후 열린 폴란드 공산당중앙위제5차 전체회의는 적어도 당분간은 야루젤스키가 당 제1서기와 함께 수상및국방상을 겸임하도록했다.

야루젤스키는 국가운영과 관련한 「사회적통제권」의 대민부여가능성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것이라고 말했다.

### 차드에 政變發生說

【파리28日AP·UPI=聯合】 프랑스외무성은 차드에 주둔중인 리비아군병력과 군대들이 28일 이동했으며 무아마르·카다피 리비아국가원수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아마트·아킬 차드외상이 리비아군부사령관 압델·살람·잘로드와 함께 차드의 수도 엔자메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佛항공機 强制着陸

### 시리아機 요격받고

【다마스커스28日AP=聯合】 프랑스 소속 보잉 747점보제트여객기 1대가 29일상오1시(한국시간) 시리아 전투기들의요격을 받고 다마스커스공항에 강제착륙했다가 착륙 8시간뒤인 이날 상오4시 이륙했다고 한 공식소식통이 밝혔다.

### 駐레바논 대사관

### 濠洲서 폐쇄발표

【캔버라29日AP=聯合】 호주정부는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의해 구성되는 시나이주둔다국적평화유지군에 호주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데이어 아랍지도 모를 레바논과격분자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주레바논 호주대사관을 폐쇄키로했다고 호주외무성이 29일 밝혔다.

### 메아리

#### 프로野球시대

「꿈의 球技」이란 말이 있다. 관객을 환호로으로 까지 몰고 가는 球技를 가리킨다. 그 대표적인것이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라고 하겠다.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일본시리즈를 꿈의 球技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미국프로야구의 역사는 1세기가 넘는다. 월드시리즈도 8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월드시리즈의 覇者를 「월드 챔피언」이라고 해서 남들은 감히 정상을 넘볼수없게 「세계제1」의 霸者를 받을만큼 미국프로야구의 위용은 확고하다.

현재 메이저리그엔 26개 프로팀이 소속되어있다. 이팀들이 아메리칸, 내셔널리그로갈려 경기를 갖고 그 승자끼리 챔피언 차지의 열전을치른다. 지난해 필라델피아 필리즈가 월드시리즈를 제패했을때 50만시민이 거리에 나와 퍼레이드를 펼치며 열광했을 만큼 그열기는 높다.

일본프로야구가 태어난것은 1930년대중반. 메이저리그의 조직과 운영을 거의본받아 51년 2개리그로갈랐다. 12개팀이 양리그에서 각축을 벌이고 일본시리즈를열어 한해의王者를 결정한다.

프로팀은 기업이 경영하는 스포츠사업이다. 그래서 막대한 돈과 연결된다. 선수의연봉은 보통 봉급자의 눈엔 천문학적 숫자로 보일것이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연봉경쟁은 단연 야구선수가 선두에 나선다. 최근 평균연봉은 12만달러로 미식축구보다 많다. 연봉 1백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선수가 야구에서 나왔다.

관객동원도 놀랍다. 월드시리즈엔 으레 수십만명이 몰린다. 일본 센트럴리그는 한해 延1천만명이 관람하는 꼴이다. 巨人의 경기는 2백만명이 훨씬 넘는 단골손님을 끌어 들인다.

내년엔 우리나라에도 프로야구시대가 열린다. 한국스포츠사상 새로운 轉機를 이루고 활력소구실을할것이라는 기대가 따른다. 지금 우리 성인야구를 대표하는것은 실업야구다. 세미프로라고도 할수있는 실업야구는 웬까닭인지 인기가 없다. 코리안 시리즈의 구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한국야구가 프로 간판을 달고 나설때 이양상이 크게 달라질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든다. 1개팀의 창단비가 7억원이나 드는데 과연 그만한 호응을 받을 게임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그 소속팀이 자리할 본거지 시민은 물론 많은 야구애호인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는 프로야구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 癌 마지막 매듭 풀리고 있다

10여년전만해도 암치료법이라곤 환부를 도려내거나 방사선전문의에게 가서 고열의 원자력광선을 쬐는게 고작이었다. 이두가지 암치료법은 그정교함과 치료효과면에서 진보를 계속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암치료에있어 가장 획기적인 진보는 화학치료요법분야에서 이뤄졌다.

오늘날 암전문의사들은 약물만으로 암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서슴없이 말할정도로 화학치료요법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다.

대부분 암의경우 환자가 화학치료를 받은후 5년간 후유증없이 살아남으면 그환자는 完治된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화학요법 발전에 힘입어 암치료율은 지난 10년동안 놀랍게 발전했다.

30년전엔 암평균치료율이 25% 미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40%로 껑충 뛰었다.

백혈병으로 판명된 어린이들은 사망선고를 받은거와 다름 없었으나 지금은 반수이상이 약물치료로 생명을 건진다.

물론 이같은 화학요법의 기적은 높은 댓가를 요구한다.

거의 모든 화학치료제가 독성을 가지고있고 어떤것의 독성은 치명적일 때도 있다.

몇몇 환자들은 치료제가 효능을 발휘하기도전에 독으로인해 죽어가기도한다.

이런가운데 위험성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 약물화학치료법이 여러갈래로 신속히 개발되고 있다.

암세포를 공격할수있도록 인체내의 白體저항력을 길러주는것도 새로운 암치료방법중 하나이다.

단성생식항체로 알려진 물질이 스스로 병든세포를 찾아 치료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있다.

이물질은 멀지않아 건강한조직을 해치지않고 약물이나 방사능동위원소를 곧장 환부에운반하기위해 널리 사용될것이다.

현재 미식품의약국(FDA)이 공인한 항암제는 30여종에 달하고 수백종이실험단계에 있다.

대부분 항암제는 복용한 경우 위를 해치거나 소화효소에 의해 파괴될 염려가있어 정맥주사를통해 인체에 투입된다.

부작용 극복방법도 현저한 진전을 보이고있다.

아드리아 마이신을 복용할때 화학제를 넣어 머리가죽부분을 차게유지, 탈모현상을 막는것도 한예이다.

이러한 화학치료법의 발

### 化學療法治癒率크게 上昇

## 白血病、50%線 生命건져

### 單性生殖 항체에 큰期待

달에 고무된 의사들은 암세포에 감염된 전체부위를 절단하지 않고서 감염부위만을 제거한다든 이를 인조피부나 금속부품으로 대치하는 치료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암전문가들을 가장 흥분시키고 있는것은 人體의자체항암작용을 추진하는 항암약품의 개발가능성이다.

이약품은 마치 인체가약품의 도움을 받아 전염병과 싸우는것처럼 암세포를 공격하게 될것이다.

인터페론 항암제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인터페론을 이용한 대규모실험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인터페론은 많은 돈을 주고 산 인간백혈구에서 적은량밖에 얻을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전자(DNA) 조작공학의 출현은 일반박테리아에서도 많은양의 단백질생산을 가능하게하여 암세포연구에 필요한 인터페론의 量産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페론보다 더 암연구진을 흥분시킨것은 단성생쇄항체이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표면에, 어떤경우에는 일반 세포조직에도 항원이라 불리는 특수微分子가 있다. 이 微分子가 환자몸에 들어가게되면 피속의 특정혈구를 자극하여 암세포에 저항하면서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항체와 단백질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항체는 방사능동위원소나 화학물질을 통해 건강한 세포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암에걸린 세포조직에 직접 치료약물을 가져갈수도 있을것이다.

앞으로 극복해야할 難關도 산적해 있지만 암전문가들은 암정복을 확신하고있다.

암전문가들은 『우리들은 화학치료요법의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것을 보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위크誌】

◇암치료율 (5년내再發안된숫자기준)

| 종류 | 어린이 | 성인 | 만성 (백혈병) | 피부암 | 자궁암 | 전립선암 | 결장암 | 고환암 | 방광암 | 위[illegible] | [illegible] | 유방암 | 폐암 | 호지킨스씨병 |
|---|---|---|---|---|---|---|---|---|---|---|---|---|---|---|
| 70년 | 35 | 3 | 35 | 70 | 69 | 60 | 47 | 68 | 65 | 12 | 58 | 86 | 10% | 61 |
| 80년 | 55 | 15 | 40 | 75 | 73 | 65 | 52 | 90 | 70 | 20 | 73 | 90 | 15% | 80 |

## 猶太人로비活動 30년만의 敗北

### 레이건의 「警報機판매안」 勝利…政治的 기반다져

## "中東平和에 사우디 한몫" 탁월한說得 "不利"뒤엎어

### 技術·軍事力등 美國勢 사우디에 정착

【워싱턴29日=曺淳煥특파원】 레이건美 대통령은 28일 대의회관계에서 불패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번에는 조기경보통제기(AWACS) 5대등 총85억달러에 이르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는 첫 중요 외교정책을 놓고 의회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상원에서 52대48로 레이건이 승리했지만 불과 2~3주전까지만 해도 레이건을 지지한 숫자는 30명 내외였다. 유태계 미국인이 상당한 세력을 잡고 있는 美언론은 행정부가 경보기판매정책을 내놓자 싸움은 처음부터 레이건의 패배로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레이건이 이처럼 불리한 싸움을 뒤엎을수 있었던것은 우선 그의 탁월한 설득력이 힘을 발휘한것이다.

지난1~2주동안에 백악관의 부름을 받아 레이건을만났던 상원의원들은 경보기판매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고말했다.

미국신문들은 유럽에서는 브레즈네프보다 레이건이 더위험한 인물로 인기가없다고 보도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정치기반을 반석처럼 굳혀가고있다고 보도했다.

레이건은 표결전날인 27일 하루에 마음을 굳히지 못한 상원의원 8명을 경보기판매쪽으로 돌리고 반대해온 1명을 지지에로 포섭했지만 경보기판매가 어떤이득을 가져온다는식으로 자상하게 따져들어간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외정책에서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지도력이 부각되어야한다는것과 중동평화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것을 역설하고 레이건특유의 인간적 자력으로 의원들을 포섭했다.

국민들에 뿌리를내린 레이건의 지도력과 열성어린 설득노력앞에 막강한 유태로비활동이 지난30여년동안 처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에 유태계시민은 6백50만으로 전인구의 3%이지만 유태로비는 이스라엘을위해서는 언제든 미상원의원 60~70명을 움직일수있는것으로 알려져왔다.

유태로비는 선거때마다 민주당정치자금의 60%, 공화당자금의 40%를 헌금해왔다. 유태계 미국시민들은 민족적 선민의식, 협연한 강한조직력, 열띤 정치의식, 풍부한 재력, 높은 교육수준으로 단결하여 로비집단으로 훌륭히기능해왔다.

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그해에 닉슨행정부는 15억달러의 대이스라엘 군원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유태로비가 22억달러로 불어나게한것은 그실력을 과시한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 막강한 유태로비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된다고 본 사우디에의 경보기판매를 저지하지 못한것은 기존 미국정치기상도에 새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것을 뜻한다.

사우디에 85억달러의 고성능무기를 판매하려는 정책자체가 이스라엘 안전에 편중하다시피한 종래의 외교정책에 중대변화를 몰고 온것이다.

◇기쁨의미소짓는 레이건 美상원본회의에서레이건대통령의 對사우디 AWACS機 판매안이 가결된후 레이건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에 둘러싸여 기쁨의 미소를 짓고있다. 【워싱턴28日AP聯合=本社】

이 외교정책전환은 유태로비와 공존하는 전통적동부 기성세력에 속하는 헤이그국무장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부 신흥세력으로 불수있는 와인버거국방장관에 의해 발안되었다는점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와인버거장관은 얼마전 의회증언을 통해 미국은전통적 유럽 및 동아시아 중시정책에서 엄마간 벗어나 중요 석유공급원인 중동중시정책으로 방향을 돌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알렌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은 85억달러어치무기가 사우디로 흘러들어가는것만이 아니라 기술, 군사력 곧 미국勢가 사우디에 정착하여 평화안정세력을 이루게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련이 사다트암살후 PLO를 내세워 모슬렘교도들에게 파고들어 아랍세력을 규합하려는 원대한 포석을 했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이집트에만 의존치않고 사우디를 중심한 아랍온건 세력을 추가하여 석유를 확보하면서 중동평화기반을 넓히려 한다. 정치에 눈을 떠 방향을 돌린 아랍모슬렘 교도들의 향배는 중동정치판도에 큰 영향을 줄것이다.

반미 반서구를 부르짖고 있는 모슬렘 과격주의자들이 세력을 넓히기 전에 미국이 모슬렘교도의 민심을 얻는것이 무기판매보다 우선하는 문제일는지모른다.

### 国際焦点

## "美國은 어려운때의 친구"

### 美上院의 警報機판매승인…사우디 표정

## 사우디全域 "神은 위대하다"

## 國王"聖域방위武器얻었다"

【마나마(바레인)AP·聯合=本社】 『신은 위대하다』는 외침이 29일상오 사우디아라비아전역에 울려퍼졌다.

각신문사에는 美상원의 AWACS등 85억달러상당의 對사우디무기판매안승인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사우디인들은 겹친 경사를 만나 환성을 질렀다. 하나는 AWACS의 승리고 다른 하나는 이날이 모슬렘축제일이기 때문이다. 「새해」라고 부르는 이축제는 모하메드가 기원전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도피를 기념한 날로 서구의 크리스머스 이브와 같다.

회사직원 핫산·압델·아지즈는 이소식을 듣는순간 목욕을 하고 알라신에게 두차례 기도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끝에 미국이 「어려울때의 친구」란 사실이 판명되어 기쁘다』고 압델·아지즈는 말했다.

수도 리야드, 제다, 다란등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도 밤잠을 자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회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석유회사 종업원 다우드·알서한디는 『우리는 「새해」를 진정한 기쁨으로 축하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메카의 상점점원인 아리프·알라이에는 전화인터뷰에서 『이스라엘로비이스터들을 물리친 AWACS의 승리는 전능한 알라신이 우리에게 특별선물로 준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라신이 레이건을 치욕으로부터 구했으며 칼레드국왕과 파드황태자는 聖國을 방위할 무기를 얻게되었다고 덧붙였다.

일반시민들은 새벽부터 라디오앞에 모여 AWACS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많은 시민들이 AP 통신사무실로 확인전화를 걸었다.

## 配偶者있으면 長壽에 플러스

### 과도吸煙·體重초과면 短縮

### 老年의 勞動종사 長壽도움

#### 타임誌「새壽命계산법」소개

당신의 壽命은 얼마나될까. 근착 타임誌는 간단한「자기수명계산법」을 소개하고 있다. 의학박사 로버트·앨런이 고안한 이수명계산법에 따르면 하루 2갑이상의 과한 흡연과 체중초과가 가장 큰 長壽의敵으로 규정되고있다. 이수명계산법은 기본수명을 72세로잡고 자신의 身上조건과 생활방식,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수치를 加減하면 예상수명이 나온다.

▲身上조건 남성은 3점을 빼고 여성은 4점을 더할것. 인구 2백만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면 2점감점, 1만명이하의 시골에 살면 2점추가. 祖父母중 한명이라도 85세까지 살았으면 2점을 더하고 祖父母 모두 80세까지 살았으면 6점추가. 父母중 한명이 50세이전에 중풍이나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4점감점. 부모나 형제자매중 50세이전에 암이나 심장병을 앓은사람이 있으면 3점감점. 年收入이 5만달러이상(고소득)이라면 2점감점. 대학졸업자는 1점을 더하고 석사나 박사학위 소유자는 2점을 더 추가할것. 65세가 넘었는데도 계속일하고 있다면 3점추가. 배우자 또는 친구와 함께 살고있다면 5점을 더하고 독신일경우에는 25세이후부터 10년마다 1점씩 감점.

▲생활방식 사무직종 근무자는 3점감하고 규칙적인 신체노동종사자는 3점추가. 週5회이상, 1회에 30분이상씩 테니스·달리기·수영등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4점을 더하고 週2~3회라면 2점만 추가. 매일 10시간이상 잠자는 사람은 4점감점. 쉽게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3점을 빼고 원만한 성격이면 3점을 더할것. 작년에 과속운전으로 딱지를 뗀적이 있으면 1점감점. 하루 2갑이상 담배를 피운다면 8점, 1~2갑이면 6점, 반갑 내지 한갑이면 3점을 감점할것. 하루 평균 위스키 45g이상마신다면 1점감점. 표준체중보다 22·5kg이상 초과면 8점감점, 13·5~22·5kg이상 초과면 4점, 4·5~13·5kg이상 초과면 2점감점.


봉학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시내
전역에 직접 배달합니다..
(3 BOX이상주문)

※배추, 무, 파, 갓,
다꾸왕(왜무), 총각무등

☎ : 1-775-6256
☎ 252-1570
(아침9시이전, 저녁7시이후)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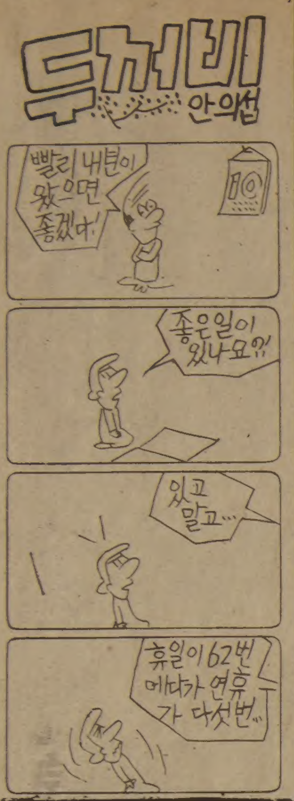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총 9개소)

1부당 30¢
현재 주3일 배달.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 · 발송부




# "구역責任制" 全國에 防犯비상령

## 兵力풀가동 機動순찰強化…예방·檢擧

## 誠意있는 자세로 警察신뢰 회복을 "犯人못잡는署長 엄중問責"

### 徐內務지시

◇徐내무

내무부는 29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사건과 겨울철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전국에 방범비상령을 내렸다.

徐廷和내무장관은 이날 열린 주요 치안관계및 수사관회의에서 근래 강력사건의범죄양상을 분석하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강도·절도범에 대해 전경찰력을 동원, 지역별책임제로 예방과 검거활동을 펴도록 지시했다.

徐장관은 최근 河英雄형사 예금증서절취사건등으로 경찰의 사기가 떨어진데다 강력사건까지 꼬리를 물고 일어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안겨주고 있다고 지적, 경찰은 성의있는 근무자세로 범죄를 막아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되찾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시된 내용은▲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대원·방범대원을 활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우범지역에 사복형사를 잠복시킬것▲기동병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 우범자를 철저히 가려낼것▲강력사건발생시 신속·정밀한 초동수사를 하고 공조수사체제를갖출것▲형사기동대는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출것▲수사비상 거점배치체제를 확립할것▲형사개인별 지역담당 검거활동을 강화할것▲장물거래와 처분업소를 철저히 추적, 색출할것▲주요미제사건에 대해 열성을갖고 계속수사할것▲반상회·직장단체등을 통해 자위방범의식과 범죄신고의욕을 높일것▲지역사회정화·방범위등과 협력,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벌일 것등이다.

또 徐장관은 각급경찰관서 지휘관은 담당구역별로 철저한 감독을하도록지시하고 실적이부진한 관서장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부터 방범지도반을편성, 각지역별로 점검활동도 펴기로했다.

## 40代奬學士 變屍 出張왔다安東서 다리밑에

【安東=聯】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安東시法興동앞 높이7m의 법흥교다리밑 중간지점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蔚珍郡교육청 사회체육계장 尹위력장학사(47)의 사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尹장학사는 오는11월5일부터 安東에서 열리는 慶北도내 학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의 숙소 예약을위해 지난28일 安東에 왔다가 이날밤10시까지 安東시東部동 반도여관에서 安東시교육청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이 여관을 나갔다는것.

경찰은 숨진 尹장학사 시체에서 타박흔적을 찾을수없어 술에 취한채 동료직원들을 전송하기위해 밤늦게 여관밖으로 나왔다가 방향을잃고 여관에서 5백m떨어진 사고장소에서 실족, 사망한것으로추정,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 百貨店서 소매치기 두목拘束 6명手配

【光州=聯】光州경찰서는 29일 전국 대도시 시내 버스와 백화점등을 무대로 소매치기를 해온 조직 소매치기단 현수파 두목 鄭鍾明(21·주거부정)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金炳喆(21·光州市西區楊林洞)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 私學규제 強化…育英의꿈 시들

# 中高校설립신청 激減

## 支援육성책 不在 의욕低下

## 50%가 私學…施設투자 全無

### 내년設立 17校예정…해방이후 最低수준

### 저리資金 觀光業엔 주면서 私學엔안줘

사학(私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불과 1년만에 사립학교를 세워 육영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격감하고 있다.

30일 문교부에서 밝혀진 82학년도「사립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원 제출및 승인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를 합해 설립계획이 17개교, 승인이 16개교(중학2, 고교14)로 해방이후 가장 적은 숫자일 뿐더러 지난 3년간의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변동이 심해 학교신설이 힘들었던 81학년도만 해도 중학 6개교, 고교 24개교등 모두 30개교가 전국적으로 신설됐고 그 이전인 80학년도에는 32개교(중학 2개교, 고교 30개교), 79학년도에는 34개교(중학 9개교, 고교 25개교)가 각각 새로 세워졌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사학육성책이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지난해 새로이 가중된 각종 사학규제조치로 민간에 의한 교육사업의욕이 과거어느때보다 침체돼있기 때문이라는것이 교육계의 일치된 지적이다。

특히 사학관계자들은『지원은 없고 규제만있는』현재의 사학정책아래서는 해가갈수록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것이라면서 중·고등학교교육의 50%이상을사학에맡겨놓고있는 우리교육현실에서 과감한 사학육성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로인한 파급효과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사학관계자들은 학교설립자에대한 사회적대우와 인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생활보장문제도 강구돼야 한다면서 설립자가 자기의 전재산을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도 그에게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가함으로써 생활이 극히 어렵게된 설립자가 한둘이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관계자들은 신설학교의격감도 우려되는 현상이지만 그보다기존사립학교가 겪고있는 재정적고통이 더심각하다면서 서울시내의 많은 명문사학들이 교사의 봉급을 제때에 지급못해 월말께만되면 자금을구하느라 동분서주하고있으며 정도의 차이는있으나 대부분의 사학들이 비슷한 운영난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매해 사학에대해 3백억원 규모의 재정보조를 하고있으나 이는전액 소모적경비에충당될뿐,시설투자는 생각도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립학교와 똑같은 규제를받으며 지원은 공립학교에만 돌아가는 현정책때문에 이미 공·사립학교간의 시설및 교육여건 격차가 해소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문교부 집계에의하면 평준화된 중·고교에서 공·사립간의 학생1인당 학교 교육비의 격차는 공립에 비해 사립이 중학생 9만1천1백41원, 고교생 13만1천2백39원이 각각 적은것으로돼있다。

한편 29일 전국사립학교교장회의가 내놓은 사학정책개선안은▲현재관광업체에까지도 융자해주는 장기저리자금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해줄것▲사학금고의설치를 실천해줄것▲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사학법인에기증한 기부금품에대해서는 무제한 손비(損費)처리할수있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줄것▲사학이 현재 보유하고있는 토지등 저수익성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성으로 바꾸려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줄것▲학교법인이 내도록돼있는 교원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은 국고에서 부담해줄것등 구체적인 내용을건의하고있다。【金時福기자】

## 怨恨관계 5명搜査

### 금복주社長집事件

【大邱=聯】금복주 金洪植사장집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大邱中部경찰서는 수사착수 6일만인 28일 처음으로 金사장에게 사업관계로 원한을 가진것으로보이는40~50대 남자 5명을 유력한용의자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들 5명이 폭발사고당시 인근주민들이 제보한 추정범인과는 직접적인관련은 없으나 이들중 1명이 하수인 또는 2세를 시켜 사고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있다.

경찰은 또 花園동산조성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達城郡花園面九羅1洞 1백18가구에 대한 호구조사와 함께 이동네 전주민을 상대로한 조사도 펴고있다.

한편 경찰은 28일낮 金사장집에 배달됐던 의문의 편지는 금복주光州출장소장 朴갑용씨가 金사장에게 위로편지로 써보낸것으로 밝혀냈으며 이날상오 수사본부에 결정적인 단서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속달편지도 淸州市三徒1洞에사는 정신이상자 金모씨의 장난편지로확인됐다.

## 有害포장容器사용 製菓업소 團束

# 太極堂·태평당등 6곳立件

### 發癌물질·납·카드뮴등 檢出

서울시경은 29일 카드뮴과 형광증백제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든 포장용기를 사용한 서울태평당과·태극당등 6개 제과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태평당제과점의 PVC케이스에서는 납과 카드뮴등이 검출됐고 태극당등 5개제과점의 빵을담는 종이상자에서도 발암물질인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는 것。

경찰은 지난7일 서울시내 10개 유명제과점의 포장용기 16종 46점을 수거, 국립보건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입건된 제과업소는 다음과 같다.

▲태극당▲태평당▲종로복떡방▲서독빵집▲크라운제과▲뉴욕제과

## 注油所등 常習털이 4人組절도단 令狀

서울江東경찰서는 29일 崔鎔薰씨(21·전과2범·일명 용팔이) 柳모군(19·전과1범) 朴相敦씨(20) 周모군(19)등 4명을 특가법 위반(강·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城東區聖水洞 공장지대에서 알게된 이들은 지난 20일 새벽 江東區石村洞9의7 태창석유 [illegible]주유소에 과도를 들고 복면을하고 침입, 숙직근무자 文東淅씨(63)등 3명을묶고 현금, 자기앞수표등 1백33만5천원어치를 빼앗아간것을 비롯, 지난달 중순부터 특수강도 5회, 특수절도 6회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2백53만 4천원어치를 털어온 혐의이다.

이들은 과도, 드라이버등 범행에사용할 흉기를 공동구입,합숙을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해왔는데 경찰은 이밖에도 이들의범죄가 더 있을것으로보고 조사하고 있다.

## 血液型을 바꾼다

### 綠色코피씨서 효소뽑아내

### 뉴저지硏究팀凱歌 B型서O型으로

뉴저지州 혈액은행 세포생화학연구팀은 녹색코피씨에서 뽑아낸 효소를 이용, 혈액형을 바꿀수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연구소의 머시·쿠리안박사는 녹색코피씨 효소를 이용, B형의 혈액을 아무 혈액형에나 수혈이 가능한 O형으로 바꾸는데 성공, 혈액부족사태를 극복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쿠리안박사는 변형된 혈액으로 수혈실험을 이미 마쳤으며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녹색코피씨 효소는 B형 혈액에만 있는 설탕갈락토제를 제거시킴으로써 B형 혈액을 O형 혈액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저지州(美)AP=聯】

## 梨大生 구속

### 교내示威 선동협의

서울西大門경찰서는 29일 梨大사대교육학과4년 金貞萬양(22)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양은 지난27일 정오에 교내 본관앞에서 달아난 시청각교육과4년 千모양(22)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5백여장을 뿌리고 축제반대, 반정부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늦가을 菊香 가을바람속에서 활짝핀 각종모양의菊花。한쌍의 연인들이 가을菊香에이끌려 발길을 멈추고있다。【파고다公園에서】

# 勞總 "妄言취소하라"

## 徐錫宰의원에 반박聲明

### "九老工團 근로자 50% 混宿" 발언 말썽

### 勞總 "근로자들 人格모독 공개 謝過하라"

### 徐의원 "男·女 국한안시켰다…低賃金따진것"

한국勞總(위원장 鄭漢株)은 29일 九老공단근로자의50%가 혼숙을 하고있다는 徐錫宰의원(民正)의 지난27일 국회발언에대해 성명을 발표,『이는 九老공단근로자의 인격을 모독한 妄言으로 즉각취소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명은『근로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따뜻한 위로는 못할망정 하등의 근거없는 妄言을해 청소년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근로자들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시킨 徐의원의 분별없는 언동을 도저히 묵과할수없다』고 지적,『勞總은 이같은 언동을중시, 汎조직적인대응책을강구할것』이라고밝혔다.

이 성명은 또『徐의원의 자녀가 그 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면 과연 그와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할수있겠는가를 自問해봐야 할것』이라고 말하고『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것이며 이번사태로인해 야기되는 모든문제는 徐의원이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徐錫宰의원은 이에대해『그러한 발언을 한것은 사실이나 月10만원이하의 적은 봉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混宿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男女간의 혼숙을 의미하는것만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원래 취지는 九老공단뿐 아니라 馬山수출공단등 전국 공업단지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태를 밝히면서 정부측에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및 권익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徐의원은 또『문제의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면 본인의 真意를 이해하기 바라며 앞으로 저임금 산업전사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올해 學·藝術院賞 시상

### 南總理참석, 致辭

금년도(제26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이 29일 상오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南惪祐국무총리와 韓炳策국회문공위원장을 비롯, 5백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南총리는 이날 시상식에서 치사를통해『[illegible] 가치표를 이룩하기위한 보람찬 [illegible]는 결코 물질적 번영만으로는 이뤄질수 없다』고 전제,『우리는 문화전통속에 담겨진 민족의 얼과 슬기를 되살리고 그 바탕위에서 외래의 문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현대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술원상 수상자인 서울大 金鵬九(불문학) 金遵敏(식물생태학) 金元龍(고고학)교수와 예술원상 수상자인 林玉仁(문학) 柳景埰(미술) 金振坂(음악) 金蘇東(연예)씨에게 상장과 휘장및 상금3백만원씩이 수여됐다.

## 40代 容疑者 수배

### 毛髮收去 감정의뢰

### 釜山 살인放火사건

【釜山=聯】40대가정주부 방화살인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 28일 숨진 金萬愛여인(45)과 채권·채무관계로 사이가 나쁜 金모씨(45·사기전과2범)가 이틀전부터 집을 비운채 자취를 감춘 사실을 밝혀내 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3년전부터 숨진金여인과 돈거래를 해왔으며 사기혐의로 경찰에 기소중지돼있다는것이다.

경찰은 이밖에 金여인과 가까이지낸 李모씨등에 대해서도 사건당일의 알리바이를 캐고있으며 캐시밀론 담요에서발견된 머리카락 3개를 채취,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사건현장에서발견된 쇠망치가 한번도 사용되지않은 신품이어서 출처를 캐기위해시내철물점을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펴고있다。이 쇠망치에서는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지 못했다。한편 경찰은숨진 金여인의 방안에서오른쪽 면장갑1개와 잠겨있던 캐비니트속에서 다이어반지 2개,금목걸이3개등 금붙이 10점과 현금17만1천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6장을 찾아냈으며 金여인수첩에 적혀있는 27명의거래자의 명단도 확인했다.

# 어린이預金 6百만원착복 金庫理事長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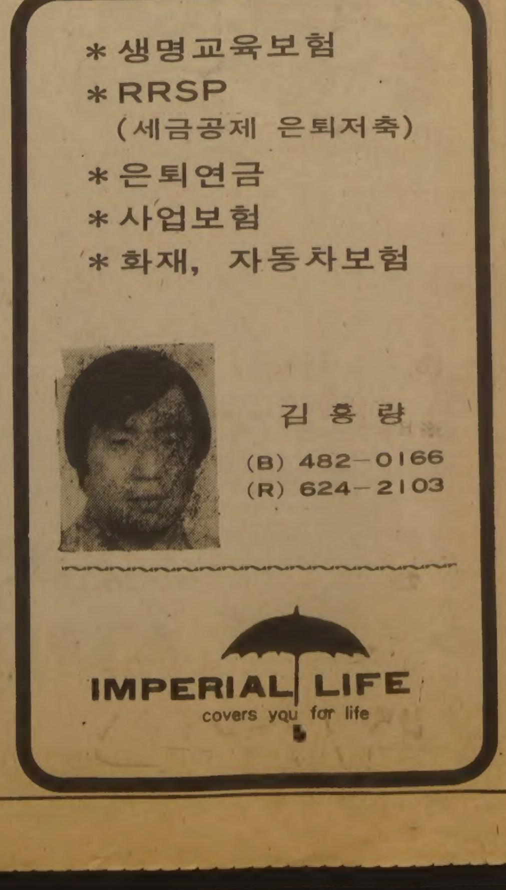
## 光州北國校生들 犯人체포호소

【光州=聯】한 어른의 물욕이 수많은어린이들의 저축의욕을짓밟고 맑기만한 동심에 먹칠을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光州 북국민학교 전교생들은 자신들이 푼돈을 모아 조성한 6백만원의 장학기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光州市東區三成洞 새마을금고 이사장 文濟七씨(53)를 붙잡아 돈을 되찾게해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있다.

29일 이학교 어린이회장 金俊植군(12)에 따르면 6년전부터 전교생이 중학진학자금 마련을 위해 매일 10~20원씩 저축한 6백만원을 지난9월 三成洞 새마을금고에 1년만기로 예탁했는데 지난10월6일 文씨가 이돈을 횡령하고 잠적해 버렸다며『이렇게 나쁜어른이 어떻게 있을수 있느냐』고 울먹였다.

이사장 文씨는 이 기금을 비롯, 모두 6천여만원의 예금을 빼낸뒤 가족과함께 도주해버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다.



# 野球제전 오늘開幕

## 對陣확정…25개高校 동문팀出戰

금년 야구시즌을 마감하는 야구인들의 잔치 제3회 야구대제전이 국내야구에 많은 스타들을 길러낸 전국 25개 고교동문팀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30일부터 10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대회에는 이미 고교를 졸업한 실업팀과 대학팀의 스타들이 모두 모교의 유니폼을 입고 재학생들과 호흡을 같이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참여한다.

초반의 가장 큰 게임은 3連覇를 노리는 慶南과 첫우승을 노리는 慶北의 대결.

# CIA文書 공개 統一敎、保留同意

【워싱턴28日UPI=聯】통일교의 文鮮明목사는 27일 앞서 통일교가 요구했던 한미관계비밀문서에 대한 미CIA(중앙정보국)의 잠정적인 공개보류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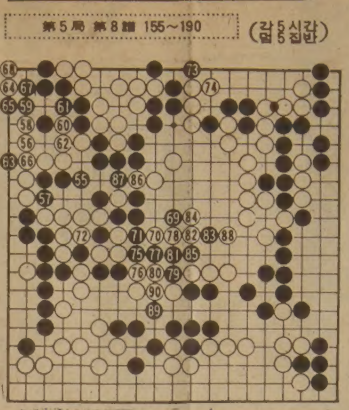
미 CIA는 한미관계에 『민감한 정보』라고 주장해 온 문제의 문서들과 관련,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것을 연기해주도록 워싱턴·버거 미대법원장에게 요청했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8譜 155~190 (갈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姜 哲 民〈1敗〉
黑(4段) 姜 勳〈1勝〉



## 白、可恐할 總攻擊

姜6단은 名人戰제1기부터 본선멤버로 활약하다가 7기때 뜻하지않게 탈락했다. 그리고 6년만에 다시 부활한 셈인데 그동안 人品과 棋力이 아울러 원숙해져서, 특히 20대의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터이며 바둑은 항상 승부보다도 두고있는 자체에 스스로 도취하는 식, 즉 말하자면 『즐길대로 즐기려는 태도』로 임하여 독특한 내음을 풍긴다 볼수있다.

그런데 이바둑에서는 즐기는 度가 좀 지나쳤다. 곱게마무리하여 이길수 있는 바둑이지만 그보다도 黑대마를 몽땅잡자는 壯擧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黑55때만해도 57의곳을 잇지않고 (이제와서 그럴수는 없지만) 白56. 黑57에 이르러 白58. 여기서부터 白의독무대였다. 白66은 67자리가 최선이라는 평이지만 이렇게 두었어도 68까지 白이유리한 「빈」이다. 언제든지 黑을 때로 잡자고 할수있기때문. 게다가 상변黑대마는 한집밖에 없는 미생마이다.

자, 완전히 포위를 당한 黑대마는 어떻게 살것인가. 姜4단은 한수한수에 자신의 고통을 쏟듯이 하며 혈로를 열기에 여념이 없다.

白은 마치 쥐를 몰아다놓은 고양이처럼 괴롭힐대로 괴롭히고있으니 黑은 그야말로 죽기아니면 살기. 먼곳까지는 내다볼수도 없어서 좌우간 최선최강으로 반발한다. 黑83이 그렇듯에서 강수. 白은 88로 연해놓고 『어디 살테면 살아보라』는 태도. 그러나 아깝게도 姜6단은 나머지 시간이 7분밖에 안된다. 과연 이런대규모작전을 능히 성공할 수 있을것인지. 【一九】

# 流星의 賦 〈221〉

李炳注作 李友範畵

### 秋風何處至 ⑲

흥계남은 중의 배낭에 있던 은 천냥과 『전율삼녀서도다』 하는 부첩과 아울러 『성제폐하봉납』(聖帝陛下奉納)등의 문서를 챙겨 이영에게 보내는 한편, 진행중인 정여립의 역모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영이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쥐고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증거가 흥계남의 손에 의해 발굴되었다고 하면 그들처럼 짜여진 조정의 정여립파들이 단번에 율곡의 제자가 꾸민수작이라고 덮어 씌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무렵 국청의 위관(委官=調査官)을 비롯하여 삼사(三司)의 요직은 전부 동인(東人)의 손에 쥐어있었던 것이다.

이런 판국인데 황해도에 사단(事端)이 발생했다.

비밀이 누설된 기미가있다고 알아차린 여립은 거사(擧事)의 시일을 동지달쯤으로 잡고 계획을 서둘렀는데 그계획의 일환으로 구월산(九月山)의 중들에게 연락이 있었다. 구월산의 중들은 이미 여립과 통하고 있었고 거사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였는데 9월의 어느날 여립으로부터 「일련탁생(一蓮托生) 결로위옥(結露爲玉)」이란 문서가 날아들었다」

일련탁생이란 같이 생사를 도모하자는 약속을 상기시킨 것이고, 결로위옥은 이슬을 맞아 구슬로 만들자는、회천지대업(回天之大業)을 성취하자는 암호였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암호로 적혀왔다. 그가운데 동지춘개(冬至春開)란 말이 있었다. 겨울이 이르면 봄이 연다는뜻으로 되기도 하거니와 동짓달에 거사하자는 뜻이기도했다. 구월산 승려들은 승복을 입고 염불을외던뿐이지 승병(僧兵)이라고 할만한 단결과 기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월산 중들 가운데도 여립과의 결탁을 좋지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의하나가 중 의암(義巖)이었다. 의암이 이런 사정을 재령군수(載寧郡守) 박충간(朴忠侃)에게 고했다.

박충간은 사실의 진위(眞僞)를 분간할수가 없었을뿐더러 이런 일을 경경히 보고하거나 발설했다간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으로 흐지부지 세월만 천연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안악군수 이축(安岳郡守 李軸)이 안악의 교생 조구(趙球)란 자가 정여립의 문하생이라고 자칭하고 많은 도당을 모아선 술을 마시며 호언장담한다는 정보를 듣고 수상히여겨 조구를 잡아들여 문초했다. 조구는 도저히 숨길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여립의 역모에 관해 자기가 아는 대로를 진술했다. 이축은 박충간에게 편지를 보였다. 충간이 안악으로왔다.

두 사람이 의논한 결과 신천군수 한응인(韓應寅)은 중앙에서도 알려진 명사이니 조정에서도 그 사람 말이면 믿지 않겠느냐는데 의논을 합쳤다. 그들은 정여립을 둘러 싼 조정의 공기를 대강 알고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신중을 기한 것이다.

박충간과 이축은 조구를 신천으로 보냈다. 한응인은 조구의 진술을 자세히 듣고 따져, 드디어 고변서를 조구와의 연명으로 황해감사 한준(韓準)에게제출했다 한감사는 그 고변서를 근거로하여 비밀장계를 임금께 올렸다.

이옥고 정여립의 옥사는 벌어지고야 말았다.

# 모눈종이위의 生 〈240〉

趙善作 金光培畵

### 모눈종이위의生 ⑦

밤하늘에는 은가루를 뿌려놓은듯 별이 총총하게 빛났다. 나는 가만히 하늘을 우러르며, 오 하느님, 하고 낮게 부르짖었다. 당신의 뜻이라면, 어머니가 가신게 당신의 뜻이라면 복종하겠나이다. 제게서 슬픔마저 거두어 가주옵소서. 아버지한테 슬픈 얼굴을보여드리기는 싫어요. 오 하느님.

한참뒤에 아버지께서 영안실에서 나왔다. 돌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등뒤로 영안실의 문이 여닫히는 소리, 문이 열렸던 짧은 순간 영안실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내가 선 곳까지 뻗어 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는 당신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내 등을 향해 뚜벅 뚜벅 다가왔다. 곧 아버지가 내 등 뒤에 서셨다. 당신의 손하나가 내 어깨위에 올려졌는가 싶더니

아버지는 나를 등 뒤에서 가볍게 안으셨다.

눈앞에 향나무들이 검게웅크리고 있었고, 멀리 차도에는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탐조등처럼 밤하늘을비추어 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내 등에 전해졌다. 당신의 가녀린 흐느낌도.

『그만 돌아 가세요』라고 나는 큰숨을 내쉬고 나서 말했다. 당신에게라고 어찌 슬픔이 없겠는가. 어쨌든 세명의 자녀를 낳으며 십칠팔년을 함께 살아온 여인이었다. 게다가 당신과의 냉담한관계를 더 이상은 참아낼수 없다고 몸부림하던 여인이었으면, 그렇게 몸부림하다 가신 것이다. 당신에게라고 어찌 별리(別離)의 뼈를 깎는아픔이 없겠는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만 돌아가쉬세요. 발인하는 날은 오지 마셔요』

내가 다시 말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계시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이튿날은 내가 마음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을만큼 많은 조객(弔客)들이 몰려왔다. 모두 세호의 친구가아니면 동료들이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일면 전 민회를 찾아왔던 남자 친구 윤준호의 얼굴을 얼핏 보았다. 그는 세호의 지시를 받고 무엇인가 우리들의 일을 돕고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근교에 있는 공원 묘지에 모셔졌다. 영구차가 영안실을 떠날 때까지 끝내 아버지께서 보이지않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안 오신댔어? 』 이건 말도 안돼』 하고 민희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세호는 그런 민희에게 『아버지 대신 내가 있는 거야. 넌 오빠를 아직도 어린애로 아는 거니?』하고 말했다.

묘지에서의 일은 오래지않아 끝났다. 어머니의 자그마한 무덤이 생기자 세호와 나 민희 그리고 은애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둘러섰다.

〈연안 이씨 집안의 아름다운 딸로 태어나 안균형씨의 아내로, 종희 세호 민희 세 자녀의 어머니로 훌륭히 사시다 간 이숙정 여사 여기 잠들다〉라고 쓰여진 화강석의 비석이 어머니의 무덤앞에 세워졌다. 세호는 뒤의 서른 명쯤 되는 친척 친지들을 돌아보고 『이게 예법에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노래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겠읍니다』하고 말했다.

아무도 세호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은없었다. 세호는 곧 어머니의 무덤을 향해 〈우리는 서로가 모순의 별들…〉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세호의 목소리는 좀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세호의 노래는 놀라운 호소력을 전하면서 청중들을사로잡았다. 등 뒤에서 흠찍이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들렸고 그것은 나도 민희도 은애도 마찬가지였다. 세호의 노래가끝났을 때 나는 마치 세호의노래가 수없이 많은 비누방울이 되어 무지개 빛으로 어머니의 무덤과 우리들의 둘레를 떠도는 듯한 느낌이었다.

# 나의 이력서 ⑳

윤치영

〈題字·尹致暎〉

나는 海公 申翼熙밑에서 국회부의장을 두차례 지냈다. 制憲과 2대국회에서 의장인 海公을 보필해야되는 입장이었다. 制憲국회때는 그와 깊은 友誼를 나눈 시기였으나 2대때는 정치노선을 두고 방향이 서로 갈라져 좀 서먹서먹한 입장이었다.

지난날 議政시절 내가 본 海公申翼熙는 인간적으로 好人이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偏愛하지도 않는 성품이었다. 그는 모략과 術數를 모르고 또 쓰지않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모략자체를 싫어했고 특히 분열을 조장하는 政略엔 등을 돌렸다.

海公의 혁혁한 政略이라면 조직성, 치밀성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이 내가 본 느낌이다.

海公은 上海臨政의 다른 要人들과는 달리 建國을 전후해 李承晩박사를 많이 도왔다. 그는 일찌기 臨政안에서 李東輝국무총리가 臨政대통령이던 李박사를 맹렬히 비난할 때도 분열을 일으켜선 안된다며 이를 극력말렸다.

훗날 野黨(民主黨)의 總帥이자 대통령후보로 나섰을때 漢江백사장의 50만군중앞에서 李정권을 비난하며 獅子吼를 토하던 그였지만 건국초기에는 李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었다. 내가 初代내각에 참여했을때 李대통령은 海公이 도와준

## 海公 申翼熙

바 크다며 몇번이고 감사의뜻을 비쳤다.

海公은 나보다는 나이가 4세위였고 대학(早稲田大)으로도 나의 3년선배였다. 그는 졸업후 한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몇번 만난적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는 개인적인 인연은 별로 없었다.

海公, 그는 好人다운풍모답게 膽力이 큰 인물로 통했었다. 나도 들은 바지만 그는 上海臨政시절 프랑

## 謀略·術數모르고 圓滿·담력큰 政治人

## 建國초기 깊은 友誼…후에 路線갈려

스租界를 기습한 日警에 쫓겨 李始榮선생등 몇몇 要人과 함께 중국인 노동자합숙소로 피신했다. 그때 다른 인물들은 가슴을 죄며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海公 혼자만이 드르렁코를 골며잠을 자더라는것이다.

그렇게 담력이 있다는 海公도 釜山정치파동과 拔萃改憲때는 몹시 흔들렸다. 당시 野黨일각에서는 海公이 잔뜩 겁을먹고있는것같다고 말했다. 사실 당시 그의입장은 정말 괴롭기 그지없었다. 대통령直選制案을 찬성할수도없을뿐더러 그렇다고 야당이낸 內閣책임제案을 적극지지하고싶어도 中立을지켜야되는 국회의장이란입장과함께 정부측의 미움과 압력이 너무나 거셌다.

拔萃改憲案이 통과되기 바로 얼마전, 나는 의장인 海公이 몸이 아파 登院을않고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어디 아프냐』고했더니 그는 대답대신 이불을 덮어쓴채 진땀을흘리며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그 땀은 惡寒의 땀일 수도있으나 그때보기엔 걱정과 두려움의 땀인듯 느껴졌다.

拔萃改憲당시 그는 눈물을 흘렸다. 起立표결로 반대 한명없이 통과됐으니 心氣가 오죽했겠는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拔萃改憲통과에는 立法府책임자인 海公도 그 책임의일단은면할수는없다고생각했다.

海公은 지극히 서민다운 사람이었다. 貧富貴賤을 가리지않고 아무와도 어울렸고 아무데서나막걸리를 마시고 체통의 울에서 해방되기를 좋아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후보선거유세당시 부통령후보인 張勉등이 질색을 하며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길바닥에서, 주막에서 막걸리를 즐겨마셨다.

◇早稲田대학선배인 海公 申翼熙前국회의장은 철저한 中庸의 정치인이었다. 사진은 53년6월2일 金東成씨와 엘리자베드英國女王 戴冠式에 참석차 出國하는 海公(左).

그는 또 廣한 면이 있는듯 하면서도 변통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臨政시절 주변머리없는 사람들때 그는 중국인들한테서 음식을 얻어 거둬먹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그의 변통성은 정치에서도 그랬다. 建國당시 유수한 臨政요인들이 참여를 거부했을 때도 그는 대동단결을 주장하며 建國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改憲후에 뜻이 크게 갈라지고 후일 野黨총수로 李박사와 대결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원래 분열을 싫어한 大同主義者였다.

함께 국회의장단으로 일하던 2대국회의 막바지시절 海公은 臨政시절의 분열상을 나에게 얘기하며 『뼈아픈 前轍을 되풀이 해선 안될텐데…』라며 어두운 표정을 짓곤 했다.

어떻게보면 海公은 자신의 뜻을 펴지못한 불우한 정치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海公이야말로 인격과 德을 갖춘 中庸의 정치인이었다. 그처럼 원만한 성품이었기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難局에 처했던 制憲과 2代국회의 장을 무난히 감당해냈다고 본다.

당시 立法府의 長으로서 海公만한 인물이 없었다.

사실해방후 이땅에는 숱한 人物들이 明滅했지만 상당수가 본인의 참모습이 아닌 美化된 面이 다분히 있었다.

與黨도 그랬고 野黨도 그랬고 모두가 跛行的이고 비정상적이었던 이나라 정치와 議政史에서 솔직한 얼굴보다는 감추어진 얼굴의 面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당시의 정치歷程을 돌아볼때 與黨도 野黨도 平價切下되어야하며 잘못 또는 過剩美化된부분은 바로잡아야될것이다.

# 全亨吉再起戰 오늘 泰선수 맞아

프로복싱前WBC 라이트급5위이며 현재 주니어라이트급 5위선수로 재기를 노리는 全亨吉(23)은 30일 저녁장충체육관서 泰國의 데칼·키아트분용을 맞아 10회전경기를벌인다.

# 曺英浩 배구審判 「최우수심판」選定 세계J大會서

제2회 세계여자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했던 曺英浩씨(배구협회 기획이사)가 이번 대회기간중 「최우수심판」으로 선정됐음이 29일 귀국한 선수단에 의해 알려졌다.

# 이 포르투갈팀大破 월드컵 蹴球예선전

【텔아비브29日AP=聯】이스라엘은 28일 텔아비브에서벌어진 월드컵 축구예선경기에서 포르투갈을 4-1로대파, 포르투갈의 결선진출 전망을 어둡게했다.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3-0으로 대패했던 이스라엘팀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베니·타바크선수의 수훈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었다.


## 인사말씀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고 성장해온 본 아리랑식당이 그 동안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였읍니다.

그간 코리아타운 번영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본 식당 뒷쪽에 58대분의 주차장이 마련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아울러 몇가지 메뉴를 추가하였아오니 배전의 애용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 순 채 배

## 요 리 부

### 중화요리

탕수육
탕수어
탕수새우
라조기
깜풍기
팔보채
해삼탕
양잠피
전복요리
란자완스

### 한국요리

잡채
고추잡채
낚지볶음
오징어볶음
제요리
돼기고기튀김
소고기튀김
새우튀김
생두부
전복회
민어회

囍

## 식 사 부

### 한식

갈비정식
즉석불고기정식
조기매운탕
순두부백반
된장찌개
김치찌개
곱창정골
육개장
갈비탕
만두국
떡국
비빔밥
함흥냉면
비빔냉면
평양냉면

### 중국식사

짜장면
짬뽕
간짜장
삼선짬뽕
삼선짜장
삼선간짜장
울면
삼선울면
우동
삼선우동
군만두
짜장밥
잡채밥
잡탕밥
소고기볶음밥
돼지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야채볶음밥
닭고기볶음밥

ARIRANG HOUSE

아리랑 하우스

716 BLOOR ST. W.

TEL : 532-2727